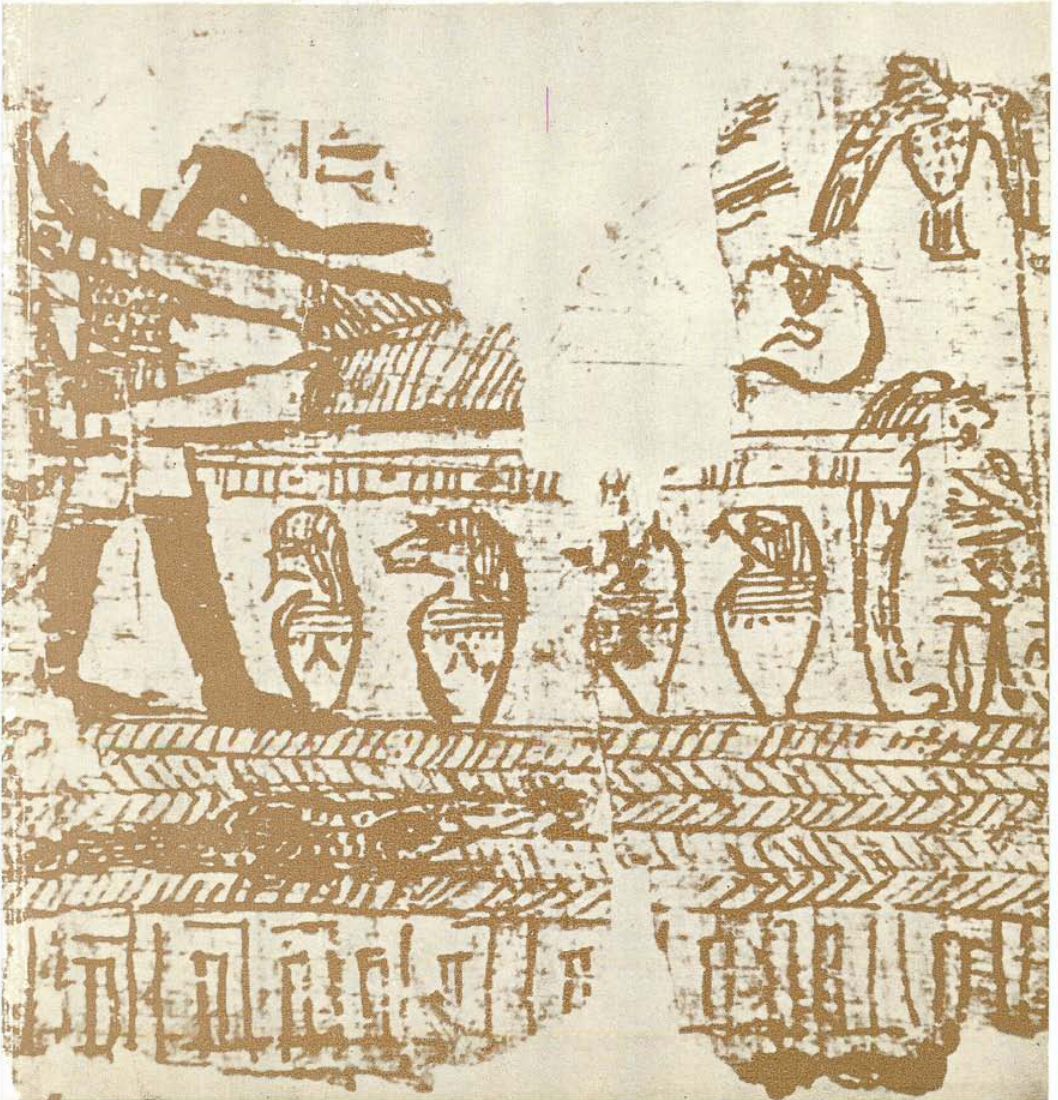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Sôngdowi-Bô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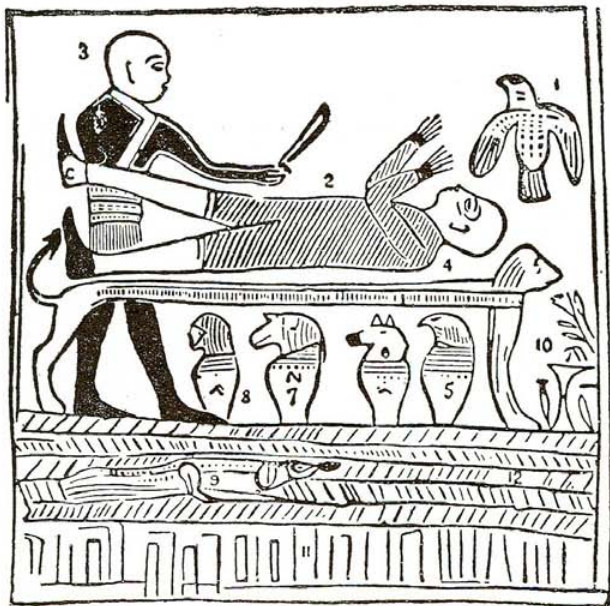


그림 설명 :

이 그림은 우상 숭배교의 제사들에게 잡혀 죽을 뻔 했던 아브라함이 손수 파피루스 그린 것을 요셉 스미스께서 설명을 하기 위해 그림을 복사하고 번호를 붙인 것이다.

1. 주의 천사 2. 제단위에 묶인 아브라함 3. 아브라함을 제물로 마치려는 엘케나 (우상신의 한 이름)의 제사 4. 엘케나, 리브나, 마막크라, 고라스, 바로등의 신 앞에서 우상숭배교의 제사가 제물을 바치는 제단 5. 우상신 엘케나 6. 우상신 리브나 7. 우상신 마막크라 8. 우상신 고라스 9. 우상신 바로 10.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11. 애굽인이 이해했던 것 처럼 하늘의 기둥을 나타내려한 것 12. 라 우기양, 광활하다는 뜻으로서 우리의 머리위를 덮은 궁창을 말함. 여기서는 애굽어의 사마, 히브리어의 사마힘에 해당하는 말로서 높음 또는 하늘을 나타냄.

성도의 벗

제4권 제1호

순서

1968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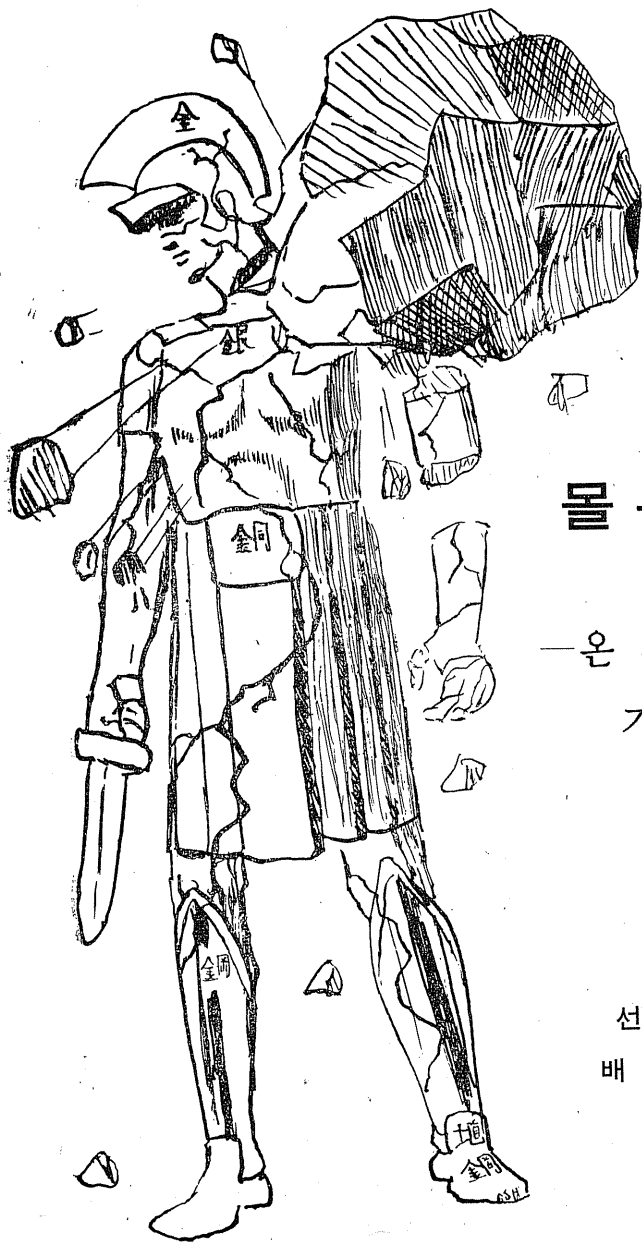
권두언.....배일문... 2
 대관장 말씀.....데이비드 오·맥케이... 5

특 집 요셉 스미스의
 파피루스 되찾다 8

☞ 사랑을 나눕시다.....마리온 디·헝크스...14
 <지방부장 멧세이지> 이웃을 구원하자.....차종환...26
 선교부, 지방부, 지부역원소개.....30
 교리문답.....32
 성도의 벗 퀴즈(제10회).....33
 기록으로 가득찬 산.....34
 <이달의 찬송> 제12장 보라 당당한 군대.....정대관...36
 성탄모임 상황38
 나의 꿈의 여인에게.....귀환선교사...44
 지부소식.....51
 노량진동 54번지를 찾아서.....김창철...50
 멀리있는 성도들안상인...54
 <특별연재>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의 추억(4).....56
 <섬경동화> 노아 할아버지김양자...65

표지설명 : 값진 진주 아브라함서(영문판 28페이지)에 나오는 것으로 예언자가 직접 복사한 원본의 사진이며 이번엔 함께 찾았다. 본문 8페이지 기사 참조

<권두언>



물몬정신

— 온 세계에
가득찬 돌 —

선교부장
배일문

바벨론 왕이요, 유다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은 즉위 2년 되던 해에 꿈을 꾸었다.

그는 꿈의 뜻을 알고자 하여 마음으로 매우 번민하였다.

그는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부름에 당황하기만 할뿐 결국 해몽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라고 까지 명했었다.

히브리 예언자로서 명망이 높은 다니엘이라 이름한 현명한 자가 이를 듣고, 그가 왕의 이상하고도 기이한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였다.

다니엘은, 진리는 마술이나 술책으로 혹은 바벨론 박사들로서는 능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였고, 그의 진지한 기도는 응답되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5절에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면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비록 주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는 위대한 인간의 꿈을 본 것이었고, 느부갓네살 시대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할 여러 왕국의 흥망을 본 것이었다.

그 영상(影像)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었다.

열개의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혼합되어 있었다.

이 거대한 상의 여러가지 부분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금으로 된 머리

B. C. 677~538년의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과 팔

B. C. 538~331년의 미디아, 페르샤.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B. C. 331~161년의 마케도니아 제국.

철로 된 종아리

B. C. 161~A. D. 431년의 로마 제국.

철과 진흙으로 된 열개의 발가락에 나타난 왕국들은 꼭 집어 알 수는 없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96 년의 이태리 750 년의 불란서
830 년의 영국. 865 년의 벨기.
922 년의 화란. 1138 의년 폴투갈.
1136 년의 페르시아. 1158 년의 오스트리아.
1471 년의 서반아. 1828 년의 그리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 해석하고 예언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다니엘서 2:44~45).

말일 성도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기쁘게 마지하고 있다.

현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19세기 초기에 시작된 하나님 왕국의 회복의 때가 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언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참으로 한 음성이 외치나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린 양의 만찬을 준비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주께 기도하라. 주의 기록하신 이름을 부르라. 그의 놀라우신 업적을 백성 가운데 알리라. (교리와 성약 65:2~4),

나의 친애하는



대 관 장
데이비드 오·맥케이

교회에서 일하기로

부름받은 여러분

● 여러 주일을, 그리고 여러 달을 계속해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봉사의 결과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젊은이들이 깊은 감명을 받는 여러분의 고결한 말과 행동의 모범은 영원히 살아 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헛되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 인류가 흥미를 가져주고 또 몰두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열의가 교회 전체를 통해서 고조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러한 오늘의 발전은 다만 교회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옛 선자 사무엘 처럼 “주여 말씀하소서……당신의 종이 듣사옵나이다”(삼상 3:9, 10)라고 대답할 자세가 갖추어진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벗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빕니다. 다른 생활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 소년 소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화의 손길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들에게 임무를 맡기기만 하면 저들도 여러분의 대열에 참가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고의 결실이 영원을 두고 치달으며 영혼과 영혼을 일깨워주는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의 책임감을 바로 자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언행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쓸만큼 정신력이 투철할 것으로 믿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경건치 못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는 참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면 자기 아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음식의 축복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신권을 소유하고 또 존중함으로써 가정은 달라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신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

어진 최상의 은사이며, 신권을 소유하는데 있어서의 첫째로 손꼽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당함입니다.

신권을 존중하되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고 이웃을 기꺼이 돕겠다는 열의로써 행하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시오. 먼저 스스로에 정직하고, 형제와 더불어 정직하고, 가족에게 정직하고, 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정직하시오. 늘 정직하시오. 눈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며, 정직과 성실은 성품의 바탕이 되는 때문입니다. 신권을 갖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바탕을 토대로 쌓아 갑니다.

신전 사업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어 이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이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믿음 이상의 믿음과 지식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 통치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묻기

위해 밤에 예수께로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 3:5)

나는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수 백만의 사람이 어떻게 물과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러는 저들이 침례받을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합당한 의식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의식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저들도 역시, 아니 모든 사람이 원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요, 이러한 논리는 구세주의 말씀과 조화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의식은 오직 말일 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의 신전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늙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은 절대로 노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으로의 열의를 늘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지탱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영광, 열의와, 기쁨과 삶의 참된 영감을 여러분은 늘 가질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줍니다.

아무리 그 진로가 외롭다하여도 그 근원에서 비롯하여 바다에 이르기까지 땅을 축복하지 않는 강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만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별은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삶전체가 강건하고 또 훌륭하지 않고서는 그 삶의 목적이나 결말이 강건하거나 훌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깨달아 늘 행복하고 마음으로는 늘 젊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요셉 스미스의

피피루스 되찾다

한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소장하고 있다가 일부가 1871년 시카고 대화제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파피루스(편자주: 고대 나일강 유역의 식물 섬유로 만든 종이로 양피지 이전에 사용·3세기 이전의 서적은 주로 이것으로 제작. 19세기 발굴로 BC 4~AD 7세기의 파피루스 문서가 대량으로 출토. 고전 문학의 단편이 다수 복원 헬리니즘 시대의 언어, 사회 상태, 원시 그리스도 교회의 연구에 공헌—동아출판사 발행, 1965년판 새백과사전) 원고가 다시 교회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뉴욕 시립 박물관측은 11월 27일 애급관에서 거행된 특별한 식전에서 대관장단의 엘든 테너 부대관장에게 발견된 원고를 전달하였다.

이중에는 예언자가 손수 그리신 값진 진주의 아브라함서에 나오는 복사한 그림 1의 원본도 있었다.

박물관장 토마스 후빙박사는 예언자의 미망인 엠마 스미스와, 예언자와 엠마의 아들, 요셉 스미스의 서명이 든 편지 원고 11장도 함께 테너 부대관장에게 인계한 것이다.

1856년 5월 26일이란 날자가 들어 있는 그림과 편지는 교회의 입장을 상당히 유리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발견된 원고는 전부 부리감 영 대학에 넘겨져 세심한 연구 분석과 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다.

편지에는 에이 콕씨에게 애급의 미이라 4개와 파피루스를 미망인과 아

들의 합의하에 양도 한다는 계약 내용이 적혀 있다.

다른 파피루스에는 전통적인 애급의 장례에 관한 기사를 상형 문자로 기술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자의 책」이라는 파피루스는 보통 애급의 미이라와 함께 매장된다.

11월 27일 테너 부대관장이 받은 원고중에 아브라함서와 직접 관계된 것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835년 오하이오주 커트랜드에서 미카엘 에치 쉐들러씨로부터 예언자가 구입했던 미이라와 그 밖의 것이 전부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교회에 인계된 이들 자료는 약 일년전에 유타 대학의 아지즈 에스 아티야 박사가 박물관 애급관의 침침한 방에서 발견한 것이다. 비 회원인 아티야박사가 콕트 또는 마호멧교의 파피루스를 찾기 위하여 박물관에 소장된 파피루스를 뒤지다 찾아낸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값진 진주에 있는 복사한 그림의 원본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부분이 조금 파손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요셉 스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샅샅이 조사하여 이 발견된 것들이 진본임을 증명해 주는 엠마 스미스 베다몬의 서명이 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아티야박사는 말했다.



사진 설명

上 : 좌측의 부대관장님이 박물관장 후빙박사로부터 파피루스를 받고 있다.

가운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티야 박사

下 : 뉴욕에 있는 세 종류의 미이라

교회와는 불가분의 친구가 된 아티야박사는 이 사실을 교회와 애급관 책임자인 헨리 지 휘셔박사에게 알렸다.

아티야박사는 이 발견 기록을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후빙박사는 박물관 소장의 물건을 외부에 반출하는가 매매하는 일은 흔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이 교회에 큰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본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니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테너 부대관장은 전 교회 회원의 깊은 감사를 전달하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수중에 있었던 이 파피루스를 받게 되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였다.

이 증정식에 참석한 아티야박사는 전 세계에 알려진 역사가요, 작가요, 교수다. 유타 대학교 중동 문제 연구원의 책임자로서의 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아직도 강의는 하고 있는 분이다. 그는 미국내의 5대 연구원의 하나인 유타 대학의 중동 문제 연구원 도서관 건립에 중추역할을 했다. 도서관 명칭은 그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따랐다. 그는 유타 대학 3인의 저명한 교수 중의 한 사람이다.

이번에 교회로 인계한 이 기록이 박물관의 주의를 끈 것은 뉴욕주 부르크클린의 엘리스 씨 후씨 여사가 이 기록

의 감정을 박물관측에 의뢰한 1918년이였다.

그러나 박물관측에서는 인수를 거부하므로 예언자 소유의 미이라 4개와 예언자의 미망인 엠마 스미스 비다몬의 파피루스를 후씨 여사가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상기 물을 구입한 에이 콕시 집 관리인의 딸이였다. 미망인은 재혼하였으며 엠마 루시 맥 스미스가 죽고 난 1855년에 이 파피루스를 인계 받았던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1947년 엘리스의 남편 에드워드 후씨씨로부터 이것을 구입했으며 그때부터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었다.

예언자가 산 4개의 미이라와 “돌또는 이상”의 파피루스의 행방을 묻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시카고 대화재시에 소실한 것으로 설명하고는 했다.

미이라와 두루말이 파피루스에 관하여는 교회의 적대자나 심지어는 교회 회원들까지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책이 쓰여졌다. 아브라함서의 번역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것이 아니라고 적대자들은 주장해 왔다.

파피루스에 적힌 값진 진주의 역사를 보면 한때는 흥성했으나 사장된 트리브 도시 근처의 애급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불인 여행자인 안토니오 로블리는 1828년 애급의 부총이었던 메헨트 알리로부터 티브즈의 지하 묘지를 조사

할 승락을 얻었다.

1831년 6월 7일 로블리는 수많은 미이라를 발견하였으며 그 중 11구를 얻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일리노이주 길리드의 교회 회원인 윌리엄 후라이어에게 쓴 편지에서 : “...그는(로블리)(나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애굽 아니면 터키 군인을) 일인당 하루 4내지 6센트씩의 임금으로 433명을 4개월 2일동안 고용했다.

1831년 6월 7일 지하묘에 들어가 미이라 11개를 구했다. 이 지하묘에는 수백개의 미이라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백여개를 안치소에 옮겨 놓았다. 2, 3차에 2, 300개를 무덤 바닥에 그대로 놓았다. 나중 2회에 걸쳐 운반한 것은 지나치게 썩어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결국은 안치소에 옮긴 것 중 11개를 얻었다.”

로블리가 알렉산드라를 거쳐 불란서로 돌아오고 있을 때 트리에스트에서 병에 걸려 눕고 말았다. 그는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1832년의 일이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며 기사였던 윌리엄 알도손은 로블리가 미이라를 발견한 때는 1813년이었으며, 그는 1823년 트리에스트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하여 올리버 카우드리가 윌리엄 후라이어에게 편지를 썼다는 날자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 미이라를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조카 미카엘 에

치 쉐들러에게 유언으로 넘겨 주었다. 로블리는 그 때에 조카가 애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믿었었다.

11개의 미이라는 애란의 수도 더블린으로, 거기서 다시 뉴욕시로 운송되었다. 1833년 이른 봄까지 미국 세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쉐들러씨가 이 미이라를 입수하였을 때는 포장도 뜯어지지 않은 채로였으며 미이라도 검열을 받지 않은 대로였다.

포장을 뜯자 그는 두 개의 두루말이 파피루스를 보았으며 카우드리 장로가 이야기 한대로 “천문학 계산에 관한 법과 비문” 등이, 다른 미이라에서는 2, 3개나 되는 조그만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다.

보석이나 보물을 기대했던 쉐들러씨는 크게 실망했다. 요셉 스미스에게 파피루스의 번역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예언자가 어떻게 이 미이라와 파피루스를 입수하게 되었는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1842년에 팔리 피프렛트가 쓴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의 일부는 미이라의 가슴 부분에서 나왔다.

그는 말하기를 “이 기록(예언자가 소유한 파피루스)은 지금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 도중에 있으며 일부는 아브라함이 쓴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완성한 것까지도 알아냈다. 그가 죽자 싸로의 가족이 이를 보관하여 오다가 후에 그

들이 발견한 여자 미이라에 감추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실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생각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른 법이다.”

1835년 7월 초에 예언자는 이 미이라와 파피루스를 찬들러씨로부터 구입하여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후에 요셉 스미스는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달 말까지 나는 아브라함서의 음표문자를 번역하는 일과 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애굽어의 문법을 정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하이럼 엘 안두르스는 근자에 발표한 “값진 진주의 교리적 주해서”에서 요셉 스미스가 “애굽의 음표문자와 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손으로 쓴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 페이지가 3단으로 나누어졌음을 알았다.

첫 단에는 글자를 복사한 것, 둘째 단에는 영어식 발음, 셋째 단에는 번역이 실려 있다.

“기록을 연구해본 결과 이는 고대인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작성한 것이라는 추측을 굳게 하며—그렇다면 번역자가 기록에 나타나는 언어를 판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정확하다고 하면 요셉 스미스가 아브라함서에 처음 부분을 번역한 사실에는 이의가 없게 된다”고 안두르스 박사는 기술했다.

교회 지도자들의 저서나 글을 보면 한결같이 찬들러씨의 미이라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었다.

찬들러씨가 소유하고 있던 기록이나 물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아니면 시카고 대화재의 화염속에 소실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타버리고 동시에 여기 보

.....『파피루스 經典』 발견.....

.....美 메트로폴리탄 博物館서.....

百年前에 損失 된 것으로 알려 진 것으로 三千年前에 集된 『파피루스』 經典이 지난 週 『뉴욕』 메트로폴리탄 博物館 地下 室에서 發見되어 『모르몬』교本部 에 移管되었다.

古代 『에집트』 사람들이 미라와 함께 葬禮式과 死後律法을 적어 무덤속에 묻고했던 이 『파피루스』 經典은 『모르몬』 聖 『조셀』 스미스(一八〇五~一八四四)가 一八三五年 『프랑스』 古美術發掘家 『안토니오』 로블리』와 古美術商 『마이클』 찬들러』의 손을 거쳐 入手, 保存해오다가 死亡時 그 未亡人 『엘마』 스미스에게 三人의 미라와 함께 넘겨 주었던 것을 『스미스』 여사가 『시카고』 博物館에 팔았던 것이다.

『시카고』 博物館은 一八七一年 『시카고』 大火災 때에 타버리고 동시에 여기 보

존되었던 미라와 이 『파피루스』 經典도 燒失되었던 것으로 믿어져 왔는데 지난週 『메트로폴리탄』 博物館 中東課長 『헨리』 피셔』에 의해 發見되어 『에집트』 考古學 전문가이며 『유타』 大學 교수인 『아지즈』 S. 아타』 博士에 의해 眞本이 確證된 것이다. 이 『파피루스』 經典은 『엘마』 스미스와 그의 아들의 사인이 든 十一통의 편지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모르몬』 教經典은 基督教의 契約의에 마지막에 『값진 眞珠』(PEARL OF GREAT PRICE)란 章을 따로 가지고 있다. 이 章은 『값진 眞珠』 스미스』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 그 出處를 考證할 수 없었던 것을 이미 발견된 『파피루스』 象形文字의 解讀 결과로 『값진 眞珠』 章이 그대로 『에집트』 葬禮儀式인 이 經典의 內容과 글자 文字 안 틀린 번역임이 立證되었다. 『모르몬』 經典 『값진 眞珠』 章에는 이 『파피루스』의 그림과 똑같이 (FACSIMILE) 그림이 실려있다.

사랑을 나누시다

마리온 디·헝크스

(제1칠십인 정원회 회장)

저는 약 3주전에 교회 본부가 있는 쉘트 레이크에서 잠시 대관장님과 시간을 같이 가졌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제가 방문할 선교부와 선교부장과 그곳의 성도와 젊음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가운데 몇 번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께 마음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의 선물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사랑 하나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



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지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본인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사랑을 서로 나눔처럼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의 소망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란 서로의 사랑을 사랑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월남에는 약 6000 명의 젊은 물론 청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60 여개 이상의 모임으로 나뉘어 말할 성도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슬픈 운명에 처해 있기는 하나 아름다운 그 땅의 남쪽에 서부터 위험이 따르는 북쪽 땅 까지를 방문하는 가운데 제가 방문한 곳에 있는 군 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자기 휘하에 있는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자기에 대해 존경심이 높다고 극구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은 회원이라는 것에 커다란 긍지를 느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틈을 내어서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어떤 회합은 3시간이나 되는 긴 간증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회가 진행되는 동안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철모를 썼으며,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증회는 끝났는데도 간증을 했던 만큼의 사람이 간증을 하려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께로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처럼 긍지를 느껴 보고, 기쁨을 가져보고, 감동되어보고, 저 스스로가 겸허하게 되는 때를 일찌기 가져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인간들이 울부짖는 전쟁으로 차있지 않고, 평화의 이념으로 차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침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으로 만난 것 처럼 역시 하나의 동기로 집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날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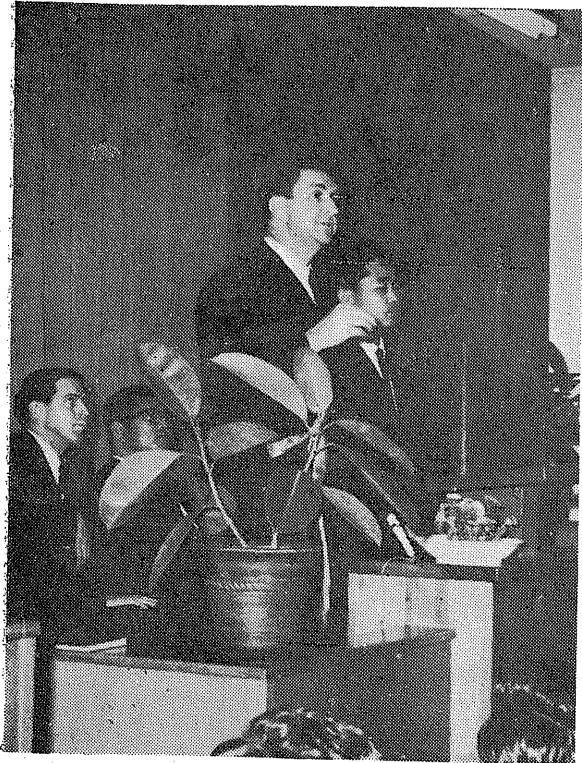
이 젊은 청년은 날 때부터 장남이어서 암흑가운데 살았지만, 예수가 그를 병의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적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가 많은 선행을 하는지라 그를 폄박할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사

람이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들의 부모를 찾아가서 “바로 이 사람이 눈 멀었던 당신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묻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아들에게 직접 물어 보시오. 대답할 만한 연령에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들을 불러 놓고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이 젊은이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가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나 그가 나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은 이유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홍콩에 있든지, 혹은 대만에 있던지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진 : 서부지부에서 말씀하는 헵크스 형제



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보도록 해 주셨습니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 생활의 목적과 스스로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던지 어떻게 처해 있던지,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경배하고 싶어지는 혹은, 예배를 해야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밖에 무엇인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이념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고, 자기 스스로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지식은 지상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외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려 하지만, 인간 그 속에 존재한 인간의 본능은 인간이 세상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혹은, 받아들여야 하겠느냐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하면 돈을, 우리의 머리를, 권세를, 그 밖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와 일에 관련된 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진리가 아니고는 영적인 궁핍을 메워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몇해전에 저의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18개월이 있을 때 아주 높은 열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탄절이 되었지만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기름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저의 친구와 함께 병원엘 갔습니다. 제가 막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시작하려했을 때, 친구되는 사람이 손을 멈추게 하면서, 몇마디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열이 몇일간이나 계속 되었어서 살어나가는 어려울 것이고, 혹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것인데, 축복을 하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의학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의지 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그밖에 어느 것에도 의존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열의 친구가 한 얘기로 인해서 사실 행동의 제약을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받아 들였다더라면 저는 아이를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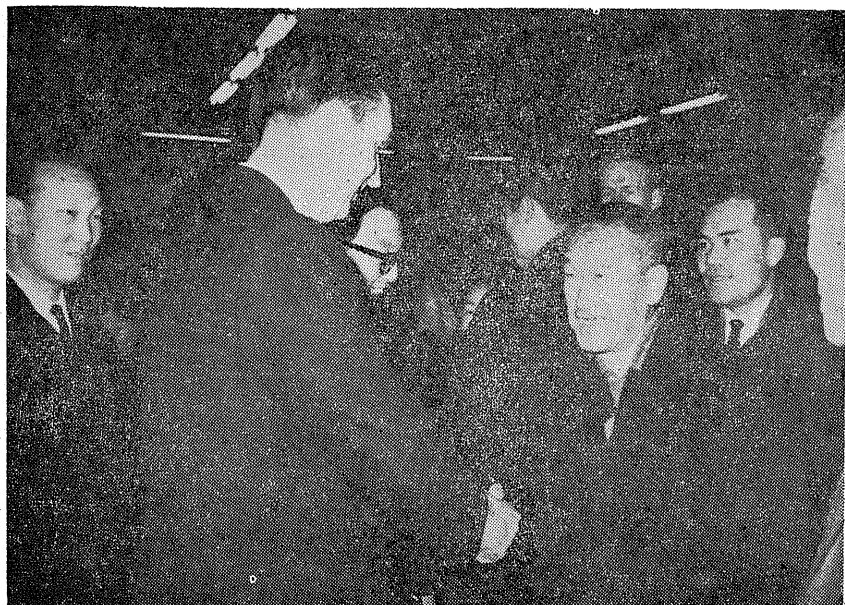


사진 : 서부에서 말씀이 끝난 뒤 형제들과 환담하는 헵크스 형제

이가 완치되기를 빌었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13살이 되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건강하고 귀여운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날 하늘 아버지께 관한 것을 다는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절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가 행하시는 바를 다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바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을 우리에게 허가하시면서도 우리들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상관치 않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형상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렸을 때 우리는 과연 마음에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너무 희생한다고 할만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 볼때, 커다란 위안을 갖습니다. 그렇게하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물려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하겠다는 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진리를 아는 일이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전에 월남의 북쪽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만, 홀로 떨어져서 도덕적인 범법을 하지 않겠다고 투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장은 자기를 강제하면서 “너는 왜 그리도 남자로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 마을로 가자. 그

리면 너는 정상적인 남자가 될 수 있다. 참된 남자라면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일을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9살의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알고,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또 다시 나오기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남자라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날”이 왔을때 어떻게 대답하여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자기 결정을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있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나의 것을 결정할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의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남자고, 당신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당신과 같은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이 속해있던 부대원중에 유일한 물몬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생각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무척 존경합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악수를 하면서 마음으로 오

가는 사랑을 누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의 아들이 그만한 연령이 되었을 때 그만한 일을 한다면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겠습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다만 이러한 사태의 답변뿐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서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진리로 그 사람들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와 진리와 자기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묻는다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좀 무어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추종자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무를 생각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성직자들이 자기 자녀와 가족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게 돌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결혼이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지식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의무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지, 결혼을 해서 있던지 간에 그러한 위대한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대관장을 뵈우러 갔을 때, 대관장님 옆에는 부인이 쏘파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존경을 하면서 맥케이 자매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그들은 결혼 67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가 갈수록 더욱 크고 굳건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으며 또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분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귀결하게 되는 자연적인 결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이 안계신 맥케이 자매님이나, 맥케이 자매님이 안계신 대관장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말일 성로의 가정이 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기 가족과 자녀를 합당하지 않게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행했던 것 보다는 좀 더 바른 자세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중에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살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몇 분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중에서는 그리 흔치 않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아직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일곱의 어린 아이를 거느려야 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옷을 탄저주고, 손으로 일을 해야 우리 일곱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는 신성한 신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고 우릴 도와주기를 열망하는 지부장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약 사람이 복음 가운데에서 살면 자기가 소

망하는 바 무엇이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시작해서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11년이 걸리도록 저는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는 모두 선교사로 생활하는 특권을 얻었으며, 신전 결혼을 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43년간 과부로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약 3개월전 마닐라로 오고 있는 비행기에서 어머니가 작고하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진 : 광주지부 회원들을 대표해서 이 구남 장로가 화환을 드렸다. 헵크스 형제는 회원들의 상봉을 감사했었다.



“어머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견주고 싶고, 어머니를 세상의 어떤 분 보다도 훌륭한 분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 어머니의 아들로써 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너희에게 완전한 상태를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갖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와 용기와 신앙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친구 한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그는 쉘트레이크 신전에서 약 15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낳아서 8살에 첩례를 받았으며,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지극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정직히 생활하는 유망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크게 명망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초동협회 교사였고, 어린 아이들은 모두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신전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전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집자가라든지,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많은 과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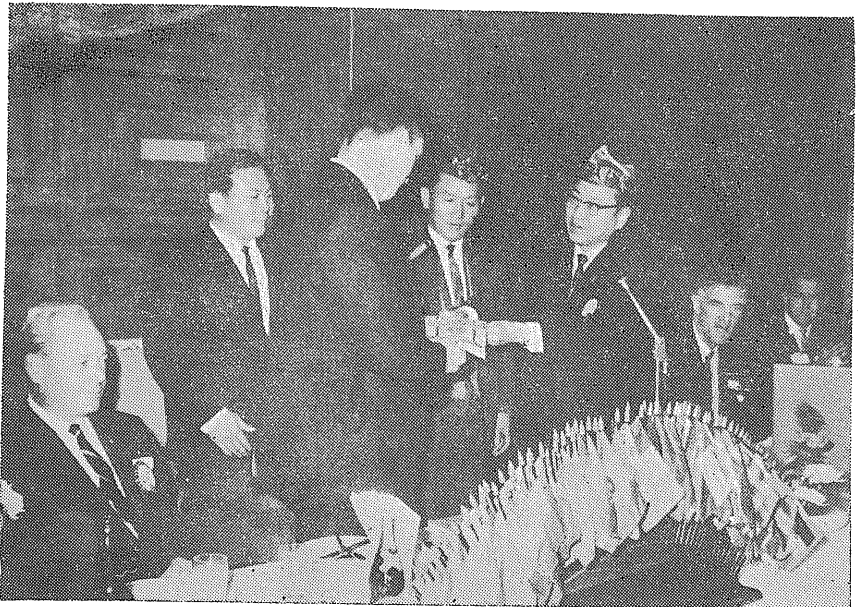
어떤 날 지부장이 그에게 가정복음 교육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수차의 부탁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를 바꾸라거나, 모임마다 전부 나오라든가 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

래서 그와 함께 다섯 집의 방문을 의뢰받은 동반자는 지명받은 다섯 집으로 첫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집중에서 네 집은 가정복음교사를 집으로 들여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섯 집 가운데, 네 집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머지 한 집을 방문해야 되겠는가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지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우리 만큼이나 못된 사람들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은 어쨌던 지명받은 마지막 집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집으로 가서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허지만 안에서 사람 소리는 들렸습니다.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몹씨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입장이 난처하게 된 이들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한 반쯤 열어 놓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반쯤 열린문으로 돌아서면서 보니까, 부인은 눈물에 차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니까 텔레비죤 위에는 맥주 깡통, 담배 껍초같은 것이 있고, 옷통을 헤친 남자가 방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들을 알아보고 와서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불러 드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근심했던 바를 지부장에게 전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부장은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계속해서 임무

를 수행해 주시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가정 복음교사들은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끝에 몇 일 후에 다시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는 먼저 번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상한 여인은 전번 처럼 문을 조금 열고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을 안으로 불러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얼마 후, 또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번째는 사태가 달랐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여인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없었습니다. 얼마를 지나서 부인은 자기 가정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게 가는 길입니다. 남자는 어디론가 가버린 후여서 우리들의 생활은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여러번 찾아 준 친절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금식 주일이었습니다. 가정복음 교사인 저의 친구는 그의 첫 번째 손자를 축복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자주하지 않았던 나의 친구의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진 : 인천 라이온스 클럽에서 맡은 뒤 기념품을 받는 햄크스 형제. 그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지도는 물질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할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할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이 거의 끝날무렵 뒷쪽에서 일어난 여인의 음성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정 복음교사의 방문을 받았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선 것은 저에게 처음 있는 일이고, 이곳을 떠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한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여인은 저의 친구와 동반자였던 사람의 이름도 같이 얘기하면서, “형제, 자매님 두 분은 알지 못했을 테이지만, 두 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나의 집의 문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이 위기에 놓였던때 두 번 기도를 했으며, 그들은 그때마다 저의 문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셨고, 이 두 분은 저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나를 여러분과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이 적은 저의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언젠가는 찾아온 두 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그 친구는 비로써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가정복음 교사였던 저의 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2,000 명이 모인 스테이크 대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할 당시 그는 스테이

크 부장의 제 1 보좌였습니다. 그후 그의 전생애가 모습을 달리했던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즉,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던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의 영을 찾아서 간증을 얻고, 간증의 영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저의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하고, 혹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이라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일은 의도하시는 결과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 서로의 사랑을 나눔을 전달해 드립니다. 대관장님, 부라운 형제님, 테너 형제님, 핑크리 장로님과 그 밖에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자

리를 함께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만은 확실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것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의 영생을 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시간이면 제가 성장해야 할 많은 여백과 장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밤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의 첫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되어왔던 것을 드림으로 해서 원하는 바의 소망은 이제부터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67년 12월 18일 서부지부에서 하신 말씀. 통역엔 한 인상 형제)

湖南旱災民에 救護品 전달위해 美 末日 성도教會 행크스씨來韓

법학박사이며 「末日 聖徒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

관리역원인 「마리온 D 행크스」(四六)씨가 湖南지방 한재민들에게 줄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十八일 오후 四시 五十分 CPA기편으로 내한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전 모르몬교)부지 계획국에서 湖南지방 한재민에게 보내는 담요 四百장을 비롯, 의복, 내의 등 신품의류 三屯(一萬千팔라 상당)을 배로 부치고 화물 인수증을 전달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먼저 비행기로 내한한 「행크스」씨는 「아이젠하워」 전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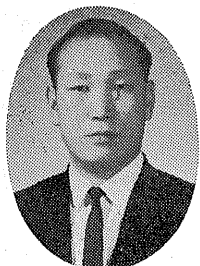
대통령 재직시 「전국 청년 체육 향상위원회」위원으로 전국을 순회 강연, 연사로 도 이를나왔다.

〈동아일보 1967년 12월 19일(화요일) 기사〉

靑少年 發育向上 講演會

靑少年 발육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온 마리온 디 행크스씨(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감독)의 「靑少年 발육 향상문제」에 대한 강연회가 19일 3시 30분 YMC A강당에서 열렸다. 57년 대통령 시민 고문 위원회 회원으로 임명 받은 뒤 靑少年 발육에 공헌해온 「행크스」씨는 오후 7시 그의 교우들을 위한 강연도 아울러 가졌다.

〈전남일보 1967년 12월 20일 수요일 기사〉



이웃을 구원하자

車 鍾 煥

또 다시 한 해가 왔습니다.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지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목숨에 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가 봅니다. 신앙에 의한 영생의 길을 안다면야 세월의 흐름이 그리도 애석하게 여겨지지는 않으려만.

저는 30여년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 봅니다. 학교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보람있고 쓸모있는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필생의 사업인 학문에도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가끔 세상을 원망하면서 되풀이 되는 생활속에서 날을 보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앞길을 캄캄해하지는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 해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며, 좋은 자식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말합니다.

새해라고해서 지난 해와 특별히 다

른 것은 없습니다. 인생도 그 인생, 땅도 그 땅, 해와 달도 지난 해의 바로 그것대로 임니다. 그러나 나이를 하나씩 더 먹듯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덤덤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다하더라도)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무의미하게 말고 보낼 수는 없지않습니까?

오는 해를 지나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경험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험없는 광야를 지내 놓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으나, 홍수의 범람으로 건너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없이 여호수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간곡히 기도하는 중에 강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고있는 의미가 무

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따르
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것이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그러진 생각 이상의 것을 갖어야
겠다는 각오는 없으신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참 진리를 알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도하
라는 주님의 뜻이 전해진 이 해를 어
떻게 보내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20)고 하신 주의 말씀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롬 10:15)고 하신 찬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율 해의 목
표로 제언합니다.

1.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
게 복음을 전하라」(막 16:15).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가 너희에게 임명한 직분에 따라 서
로 가르치라.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 처럼 여기게 하며
내 앞에서 덕과 신성을 쌓게하라」(교
성 38:23~24).

위에 인용 귀절은 이성과 지성을 가
지고 전도할 것에 힘써야 함을 얘기
해 주고 있습니다. 윗어른의 말씀이
나 직장장의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
고 옳은 방도를 모색해 보는 것은 타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의 정신
에 비중을 둔 나머지 단체장의 명령
에 소홀하라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실
행하고자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문개척자들의 고난의 역사를 잘 아
실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그것
을 모두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쁨을 가져 왔습니다. 전도
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2.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듯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
히 여기시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는 마가의 말씀은 예수님같이 모든 사
람은 전도하여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
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
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
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분의 이웃을 하늘 나라에서 진정 사랑
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
니까? 이웃을 침례장으로 인도하여
하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안습
니까?

3. 전도는 예수와 동거, 동행하는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28 장 끝해보면 「볼지어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생하는 자란 말씀이나,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편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잘못하면 다치는 어려운 여정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험한 길을 그대로 걸을때 우리에게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것을 기억합니다.

4. 전도는 성신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신 것은 성신받지 아니 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신 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옳게 응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며, 평소의 생활에 축복을 받지 못하며, 세상 일에만 앞장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사람을 인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신 받은 자의 간증은 진실하며, 간증을 듣는이로 하여금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은 성신을 받으셨습니까?

5. 전도는 영혼의 사망을 구원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20)는 말씀은, 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혹을 이겨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의 자손이라고하는 단군신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담과 이브의 자손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여도 몸과 마음이 따로 되어서 뿐만 투성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력저력 교회와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 자기의 세상 생각대로의 취미 생활을하고,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다가 마침내는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환난을 당해 앞길의 방향조차 잃게되어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후 갈길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 형제, 자매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6. 전도는 영원히 빛나는 직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직분을 다짐하는 말씀인 것이며, 이것은 하늘 나라에 정확히 기록되는 일이고, 최후 심판의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맙시다.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도 맙시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이 하

늘 나라에 기록됨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 합시다.

7. 전도는 현대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어늘 어찌 나만이 참 진리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경고하는 음성은 말세에 내가 택

한 내 제자의 입으로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고 (교리와 성약 1장 24 절) 하셨습니다.

1968 년도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비활동적인 회원을 활동적인 회원으로 인도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당신이 믿는 주 안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손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1월 1일

공 지 사 항

한국 지방부에서 결정된 다음 사항을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동부지부는 동부와 동대문지부로 나뉘어서 집회를 보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부장과 집회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종별 \ 지부	동 부 지 부	동 대 문 지 부
지 부 장	전 종 철	남 영 진
신권회, 상호부조회	오후 3:00~4:00	오전 9:00~10:00
주 일 학 교	오후 4:30~5:50	오전 10:30~11:50
성 찬 식	오후 6:00~7:30	오전 12:00~1:30
상 호 향 상 회	목요일 6:30~8:00	수요일 6:30~8:00

1967년 1월 16일

한국지방부장 차 중 환

선 교 부 역 원

선 교 부 장
 제 2 보 좌
 서 기
 "

스펜서 제이 팔머
 이 호 남
 배 태 도 일 선
 태 일 로

지 방 부 역 원

지 방 부 장
 제 1 보 좌
 제 2 보 좌
 서 기
 "
 장로정원회 회장
 평의원(주일학교 담당)
 " (우정 담당)
 " (계보 담당)
 " (건축 담당)
 " (상향회 담당)
 " (아론신권 담당)
 주일학교 회장
 " 유년부장
 남자 상향회 회장
 여자 상향회 회장
 상호 부조회 회장
 제 1 보 좌
 제 2 보 좌
 서 기
 "
 계보위원회 회장

차이박 황구 김김도이금송한김홍송이박김이최정김
 종재재종중석복길민바태인복명태도우정순장신사
 환수암섭섭식모경희관울섭상경자섭호천숙애순자원

지 부 역 원

동 부 지 부
 지 부 장
 제 1 보 좌
 제 2 보 좌
 등대문지부
 지 부 장
 제 1 보 좌
 제 2 보 좌
 서 기

전이진 남김문이
 종낙원 영웅시강
 철연선 진호우우

서 부 지 부	장	이윤김조	태덕과규	문순영영
지 제 제 서	부 보 보	지 최 주 강	영 우 덕 석	달 환 영 훈
상 청 지 부	장	이 김 홍 김	영 상 순 현	환 호 모 정
지 제 제 서	부 보 보	김 장 민 안	중 기 경 병	균 호 옥 오
청 운 지 부	장	정 쉬 고	대 민 일	판 트 도
지 제 제 서	부 보 보	배 박 김 배	리 석 진 성	돈 도 오 수
성 북 지 부	장	박 정 서 임	병 현 익 재	규 기 주 옥
지 제 제 서	부 보 보	차 배 서 박 김	일 영 현 정 우	선 천 봉 석 일
신 촌 지 역	역 장	김 송 최 이	용 재 기 근	일 현 덕 혁
지 등 포 지 역	장			
영 지 지 역	장			
대 전 지 역	장			
대 구 지 부	장			
지 제 제 서	부 보 보			
광 주 지 부	장			
지 제 제 서	부 보 보			
전 주 지 역	장			
부 산 지 부	장			
지 제 제 서	부 보 보			
동 구 지 부	장			
지 제 제 서	부 보 보			

<1968년 1월 20일 현재>

<교리문답>

니파이 이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신전을 솔로몬 신전의 모양대로 짓기는 하였으나 솔로몬 신전에 쓰인바와 같이 진귀한 물건들을 그 땅에서 구할 수 없었던지라 솔로몬의 신전과 똑 같이 건립할 수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건축방법은 솔로몬의 신전과 같았으며 지어진 솜씨가 대단히 훌륭하였더라」고 하였는데 열왕기 상 5장과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신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매일 수만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7년이라는 세월을 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인들이 미 대륙에 (니파이 2서 5장 28조 참조)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이 100명에 불과 했을 터인데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산지부 이 중 한 형제

답 : 저도 니파이가 그의 신전을 솔로몬의 신전과 비교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5장을 읽어 보면 분명해 지는데, 니파이는 자신이 건축가로서, 명공으로서 특히 제조 공업이나 손일등을 가르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기꺼워 했습니다. 그를 따른 소수의 무리들 중에서는 필경 이런 종류의 일을 앞서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점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그의 신전이 솔로몬의 신전만큼 크거나 화려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형이나 설계나 기술솜씨등이 솔로몬의 신전양식을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中南美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많은 고대 신전들은 솔로몬 신전과 같이 크며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그렇게도 자랑스레 여겼던 니파이 이서에 나타난 그 첫번째 신전은 사실상 그 모양이나 크기가 수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전을 세우기에 노고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웅장하고 훌륭하고 감사에 달인 것으로 보였겠지요.

해답자 선 교 부 장

〈제 10 회〉

성도의 벗 퀴즈

【문제】

다음 문제에 답 하시오.

1.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나? 성경의 출처를 기재하라.
3. 에베소서에는 누가 어디에서 썼는가?

【응모 요령】

1. 성도의 벗 퀴즈 제 몇회분과 주소,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2월 15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3. 5회 정답자 5명에게는 성도의 벗 1년분을 우송함. 단, 정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제 8 회〉

정답 및 정답자

【문제와 정답】

다음 빈칸에 맞는 수는 넣으시오.

1. 우리는 13개의 신앙 개조를 갖고 있다.
2.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설교 하셨다.
3.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말씀 하셨다.
4.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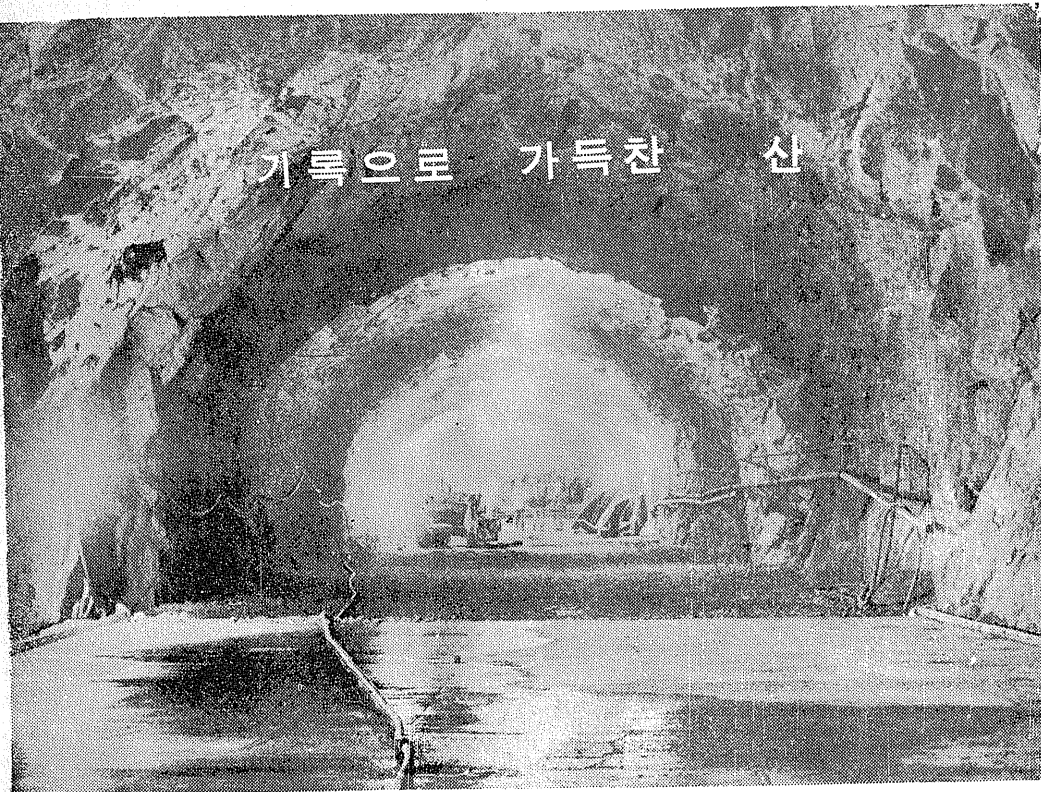
신히 3 일째 날에 부활하셨다.

5. 누구든지 자기 수입의 1/10을 십일조로 낸다.

【정답자】 없음.

※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은 8가지인데 9가지로 많이 기재하였습니다. 성경을 찾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열의를 바랍니다.

기록으로 가득찬 산



솔트레이크 시 가까이에 있는 거대한 화강암 산이 과거 여러해 동안에 교회의 큰 저장고로 변모해 왔다. 일세기 전만해도 개척자들과 황소 떼들이 솔트레이크 신전 건축에 필요한 화강암 석재를 얻기 위하여 악전고투를 했던 이곳에서 지금은 현대의 기계가 구멍을 뚫고 폭파하여 그 산속 깊숙이 까지 발굴해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곳에는 교회의 문서, 계보 마이크로 필름, 기타 귀중한 기록을 저장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런 것을 저장하는데 이상적인 기온상태가 일년 내내 지속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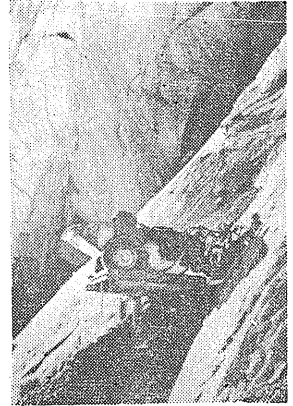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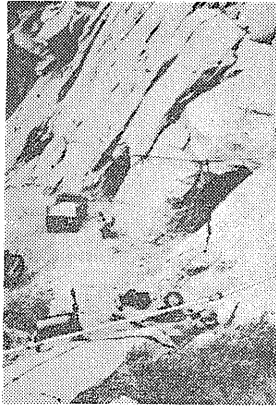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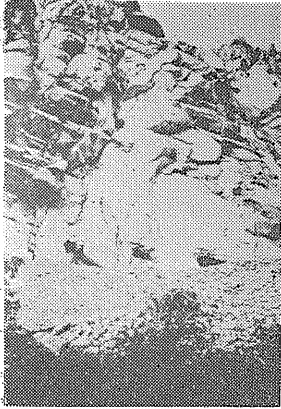
주요 터널들은 26 피트 폭으로 되어 있

으며 견고한 암석을 통하여 수백 피트에 달하는 연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공간을 만들지 않고 수많은 여백으로 구획된다. 터널들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구분되고 한층 높은 층에는 공기 도관, 수도관 및 전기가 시설될 것이다. 그 완공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업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책보 탐구 및 신전사업의 틀림없는 표적이다. 이 과업을 말일성도들의 쿠키에 “.....일체의 기록을 정리하여 나의 거룩한 신전의 기록 보관소에 넣어두며 이로써 대대로 기념하게 할찌니다.....”(교리와 성약 127:9)는 말씀을 더욱 크게 올려주는 것 같다.

◀좌측 사진은 샬트 레이크 근처의 동굴 저장소이다.

앞부분의 새로운 시멘트는 밑바닥을 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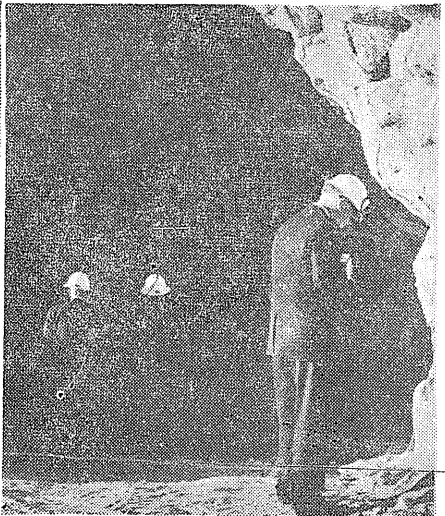
리를 커튼우드 계곡에 우뚝 솟은 화강암 절벽에 조그맣게 보이는 3개의 동굴 저장소

동굴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곡 밑바닥에서 동굴입구까지 도로가 뚫어졌다.

자갈 운반차가 산 밑으로 자갈을 버리고 있다. 개척자들은 이 지역에서 샬트 레이크 신전 건축을 위해 채석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록과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할 동굴을 건설하고있는 노동자.

계보위원회 회장단이 광부의 장비를 쓰고 그곳의 감독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보라
당당한
군대

정 대 판

작사자 파니 제이 · 크로스비
작곡자 아담 담 게 이 블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대 행진곡풍의 찬송이 많습니다. “이기세 이기세”하는 제창이 붙은 이 찬송가도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이 찬송은 눈 먼 장님이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작곡자 아담 게이블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작곡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전기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중에 “예수를 위해 일어서라”는 것과 “켄터키 애기”라는 남성 사중창 곡이 유명합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즐겨하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은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읽지 않고 시를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의 유명한 시는 이미 작곡된 곡에 붙여서 지은 것이 많습니다. 곡을 붙이기 위해 시를 쓰기 보다는 어떤 이의 곡에 알맞는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곡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작곡에 가사를 붙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뉴욕주 푸트남군 남동쪽의 조그마한 오막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시골 의사의 무지로 영구히 장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 날 들에 나가 놓고 있던 아홉살 때 그녀는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소년 소녀의 세계에서 볼 때, 문학적으로 잘 되어진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비록 볼 수는 없다 하드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으니

나는 볼 수 없소이다.
나는 장님이로소이다 하며
울고 한 숨 지어도
내가 받은 축복은 한 없구나
오 나의 행복이여!

하나님께서서는 파니 크로스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녀가 아홉 다섯살로 1915년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찬송가와 노래와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찬송가를 지은 것은 44세 였으나 죽기전 까지 지은 노래는 5천이 넘습니다.

지휘자에게

이 찬송가는 행진곡조풍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거나 무겁게 부르면 이 찬송가의 의의는 없어집니다. 특히 후렴 부분은 가볍게 튕기는듯하게 불러야 하겠습니다.

일절 첫째 단 가운데 “군대”가 “군

내”로, 이절 첫째단 셋째 소절 “애워싸나”가 “애워싸나”로 잘 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연습시간에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자 기호는 2/2로 되어 있으나 4/4 박자로 지휘하는 편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예수를 지휘관으로 삼고 모여든 용사는 곧 성도들입니다. 명령에 움직이고 명령에 생사를 내거는 규율 있는 병사가 되자고 강조해 주십시오.

매주 연습시간 마다 가사의 뜻을 되새기며 강조해 주셔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참 뜻을 회원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 지휘자의 책임입니다.

보통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이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반주자에게

행진곡조풍이라고 딱딱 끊어지게 피아노를 칠 수는 없습니다. 첫째단은 스타갓토가 될 정도로 힘있게 치고, 둘째단은 레가토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단 셋째 소절 “대담한 용사들”에서 동음으로 나가는 것은 힘있게 눌러야 되겠습니다. 후렴 또한 같은 음으로 노래하게 되므로 멜로디에 특별히 강조해 주십시오.

임시 기호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한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곡자가 의도하는 화음을 제대로 살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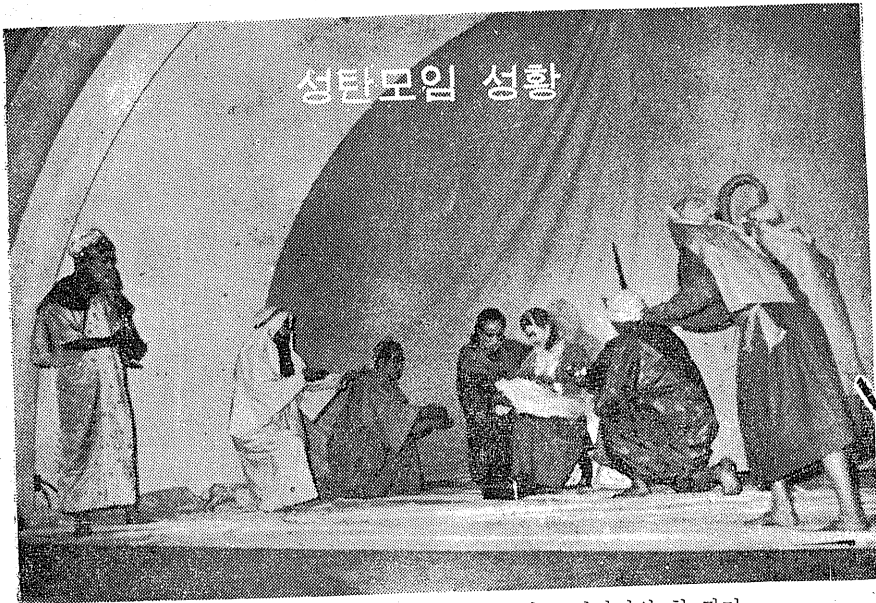


사진 :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칸타타의 한 장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967 년도의 성탄모임은 12월 21일 각 지부별로 준비된 상호향상회 모임을
가적으로 그간에 준비했던 기쁜 봉사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각 지부에서는 지부별로 그간 준비 했던 많은 것들을 풀어놓아 즐거운 하루
를 만들기에 애썼고, 역원들의 노고는 우리 성도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복
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값있는 일인가를 알게 하려고 애썼었다.

특색있었던 올해의 각 지부별 성탄모임은 23일 선교본부에서 있었던 합동
성탄절 모임이 그 절정을 이루었다.

제 1부는 각 지부에서 준비한 재능과 일문 유치원 원아들의 동극, 선교사
함창단의 찬조 출연으로, 제 2부는 지 영달 형제가 연출한 칸타타로 이루어 졌

었다. 무대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각 지부의 지부장단에 있는 나이 많은 형제들로 택했던 이번의 칸타타는 합창과는 대조적으로 몇번 안되는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운 강당에서 맨발로 장시간 연기를 했던 출연자들의 열의는 무척 많은 감명을 주었다.

각 지부 연합의 지방부 합창단은 22일 데저렛 클럽의 회원 자격으로 미국공보원 산하 성탄절 모임에서 그 첫 선을 보였으며, 예년의 지방부 합창단의 출연에 대치해서 물론 선교사 합창단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선교사 합창단은 14일 동아방송, 15일 동양방송, 17일 문화방송, 23일 오전에 KBS T·V, 오후에 TBC T·V 등에 출연하는 바쁜 일정속에 시간을 보냈고, 22일에는 인천시민을 위한 성탄 음악제에서 인천의 학생대표들과 함께 물론들의 재능을 대표했었다.



사진 : 지방부 합창단의 모습. 참석한 서울의 500여 성도들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었다.



사진 : 일본 유치원 원아들의 동극의 한 장면.



사진 : 문화방송에서 녹음중인 남성 4중창의 선교사들



사진 : TBC T·V에 출연중인 선교사 합창단. 앞의 여자들은 서울 합창단의 여자 단원들.



지 부 소 식

삼 청 지 부

지난 12월 10일 삼청지부는 지부장단의 개편을 보았다.

지부장으로 봉사하던 이 민관 형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물러나게 됨에 따라 그의 후임으로는 지방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던 지영달 형제가 임명되었다. 지영달 형제는 제1보좌에 최육환 형제, 제2보좌에 주덕영 형제, 서기에 강석훈 형제를 각각 임명하고, 이어서 각 보조조직의 역원에 대한 지지를 회원들에게 물은 바 있었다.

삼청지부장으로 임명된 지영달 형제는 “지역적인 조건을 무릎쓰고라도 1968년도에는 옛날 중앙지부로서의 컸던 지부의 모습 이상의 것을 보여주자고 회원들과 함께 다짐한 바 있다”면서 우선, 많은 회원 찾기에 힘을 기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까지 저에게 주어졌던 부름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할 때 제 개인이 갖지 못한 능력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름에 응했다”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었다.

한편 그간에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일을 다짐하는 지부대회를 1968년도의 첫 번으로 갖게된 삼청지부는 1월 27일에 상향대회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다.

청 운 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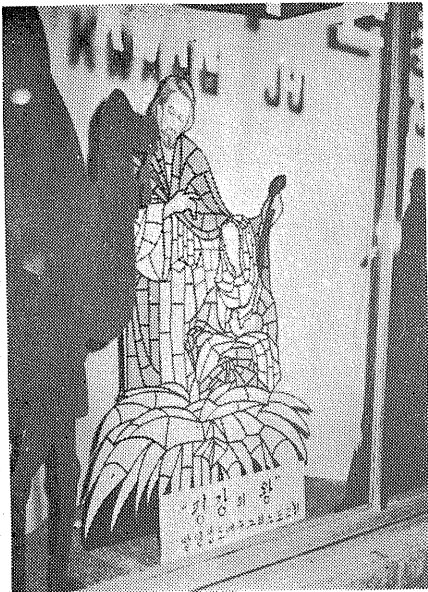
지난 12월 17일 청운지부는 지부장을 새로히 모셨다.

그간 1년여를 지부장으로 수고했던 정운지부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자리를 물러 앉게 됨에 따라, 후임에는 지부장단 제1보좌였던 이영환 형제가 지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김상호 형제를 제1보좌, 홍순모 형제를 제2보좌, 김현종 형제를 서기로 각각 임명하여 지부장단의 조직을 완료 하였다.

새로히 지부장으로 임명된 이영환 형제는 지부장으로서의 계획을 “정운지부장께서 잘 해 주셨어서 그분 이해오셨던 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년은 회원 배가운동의 해이니 많은 회원들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광 주 지 부

광주지부는 지난 달 19일 헝크스 형제님의 광주 강연을 계기로, 광주 관광 호텔의 협조를 얻어 평강의 왕이라는 모차익식의 그림을 (밀러장로 그림) 전시해서 광주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한편 우리 교회를 소개한 바 있었다. 이틀 동안의 밤을 거의 세우면서 제작했던 밀러 장로는, 시민의 시선이 그리로 쏠릴 때마다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했다.



대 구 지 부

지난 12월 2일 대구지부장단이 개편되었다. 그간 지부장으로 봉사해 오지 않았던 배 수일 형제를 대신해서, 대전에서 봉사하던 선교사 베리돈 장로가 그의 후임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청소년 소녀 대회 때에는 46명이라는 많은 식구가 참석하여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구지부는, 회원들의 열의가 가득찬 지부로 불려왔다. 지부장 제 1보좌에는 박 석도 형제, 제 2보좌에는 김 진오 형제, 지부서기에는 배 성수 형제가 각각 임명되어 지부장을 보좌하게 되었다.

이 일선 박사 강연회 성황

한국의 슈바이처로 이름나 있는 이



사진 : 울릉도민의 열 가지 약속을 설명하는 이 일선 박사.

일선 박사의 강연이 지난 12월 3일 서울지역 합동 노년의 모임으로 있었다.

울릉도에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만들어 놓기까지 의지를 쌓던 어려운 일들이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던 이 박사는, 사람이란 마음먹은 것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없이는 내세의 축복 커녕은 현세의 행복도 없다고 강조했었다.

헝크리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인연을 가진 이 박사는 선교부장님과 개인의 친분으로 이 날 강연에 참석했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우리 물문들의 발전된 모습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더욱 믿거름이 되는 즐거움이였다. 이 모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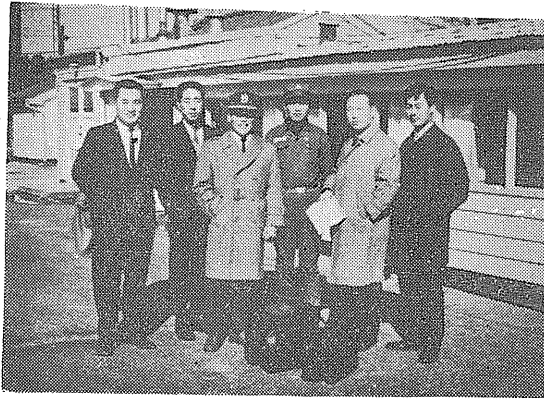


사진 : 참석한 한국형제들 좌로부터 송태섭, 금경장, 배성수, 이정협, 차종환, 김상현형제들

갖기전 서울지역의 성도들은 지난 바자회를 통해서 이 박사에 대한 소개를 받은 바 있었다.

군인 형제 대회 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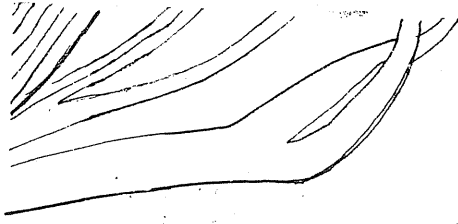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한남동의 “조그마한 천국”에서는 주한 말일성도 미국 군인 대회가 있었다.

한국 군인 형제들도 초청되었던 이 대회는 연례적인 행사로서 군인형제들만이 모여 신앙생활을 배우며 생활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군 형제 11명이 참석했었다.

첫날의 노년의 모임, 둘째날인 토요일 9시부터 있었던 1층회 후에는 동신화학등의 관광을 겸한 견학을 했으며, 오후 7시부터의 제 2층회에서는 초청연사로서 이 호남, 송 태섭형제들의 말씀이 있었으며, 12일 9시부터 있었던 간증회 모임은 이 모임의 절정을 이루었다.

가장 좋았던 모임이 간증회였음을 서로 이야기하던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점심 후 서로의 건승을 빌며 헤어졌다.





나의 꿈의 여인에게

귀 환 선 교 사

언젠가 당신과 나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어디에선가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방금 선교사의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래서 귀환 선교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싸여 있는, 그리고 희미해지기에는 너무도 새로운 기억의 流動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꿈의 소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년 전, 저는 다른 철부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기 경쟁의 텀박질에 뛰어들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름이 왔고, 작별, 낯선 이국,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비로소 스스로의 철없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했고, 삶의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구하는 데 더 노력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뉘우침을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곧 그에 따라 살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낳았고, 가슴 속에 막연하게 뒹굴던 희미한 확신은, 바로 타는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제 만을 고수하여 그대로 지나쳐 버린 昇華된 행복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랑과 결혼과 가정의 보다 큰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소녀, 꿈의 소녀에 대하여 조금은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제가 알아낸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님과 함께 삶을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신전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지상의 왕국인 가정의 여왕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복음이 진정한 행복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 복음의 일부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가지고 귀성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거리낌 없이 아무에게나 입술을 맡기는 소녀에게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의복이나 행동이 난잡한 소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따라 자기의 표준을 수시로 바꾸는 소녀, 한 두 번의 담배, 술, 부도덕에는 무딘, 그런 소녀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통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악에 속하며, 「한 번 짚은 상관없다」는 사고 방식은 영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의심스러운 동반자 중에서 당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진 곳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 꿈의 소녀는 그런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알고도 하지 않는 소녀는 물론 아닐 겁니다. 결혼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 앞에 제시해 줄 겁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설겅이도 해야하고, 의복도 간수해야 하고, 먼지도 털어내야 하고, 가계부도 있어야 하고, 또 희생도 있어야 할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배려도 있을 겁니다. 신전을 통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닥치는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쌓을 시간을 얼마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의 소녀여,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눈과 눈을 마주대고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손에 손을잡고 무릎꿇어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간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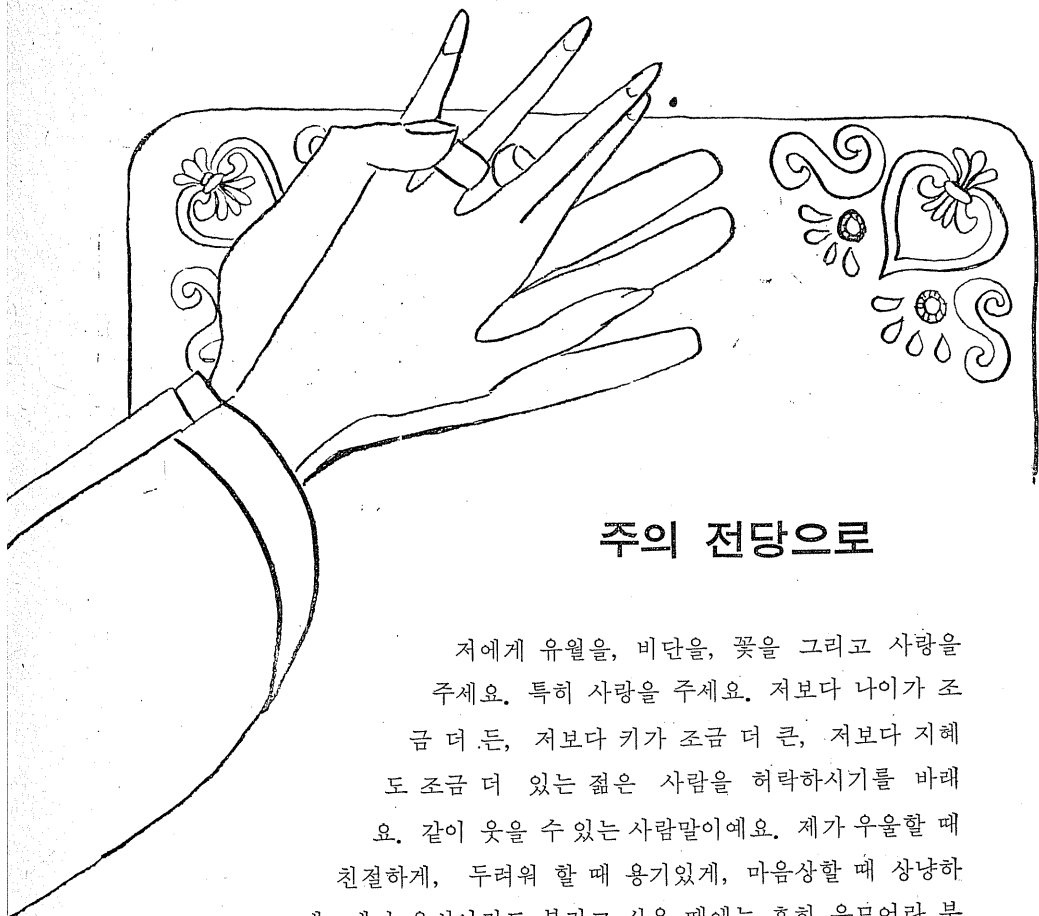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들은 만나고 말 겁니다. 만나면 나는 데이트와 담소와 즐거운 놀이를 청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아울러 필요로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달아 볼 겁니다.

저는 당신의 인기보다 영적인 면을, 얼굴이나 몸매시보다는 이상과 포부를, 얼마나 운동을 잘 할 수 있는가 보다는 가정을 얼마나 잘 꾸릴 수 있는가를 크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당신을 미래의 여왕으로 맞을 겁니다.

꿈에 그리는 나의 소녀여!



주의 전당으로

저에게 유월을, 비단을, 꽃을 그리고 사랑을 주세요. 특히 사랑을 주세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든,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저보다 지혜도 조금 더 있는 젊은 사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말이에요. 제가 우울할 때 친절하게, 두려워 할 때 용기있게, 마음상할 때 상냥하게, 제가 응석이라도 부리고 싶을 때에는 흔히 유모어라 부르는 황금의 방울을 가진 사람을 말이에요.

4년이란 충분한 세월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무를 마친 후에 서쪽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그리고 가까운 벗들과 함께 여행하게 해주세요. 미시시피를 건너 서쪽으로, 미조리를 지나 서쪽으로, 와이오아의 사막을 지나 서쪽으로, 수많은 계곡을 지나 쏘트레이크의 계곡 아래로 말입니다.

그 곳에서 제 생명의 전부인 그이와 함께 신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키 큰 젊은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완전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 어떤 현명한 사람은 제가 결코 완전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고도 해요.

아무튼 저는 완전한 사람을 바라지 않아요. 젊고, 지혜롭고, 큰 키의 그이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이 곁에 머물지 못할 거예요. 저는 결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이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만질 수 없는 유리 나비의 결혼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고 말까요? 가는(細) 시내가 모이듯이 우리들 둘을 한테 묶을 힘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저 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이와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예요.

저는 장님이 아니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 주위의 젊은이를 보아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어떤 저울로 달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원해요. 저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유월이 가기 전에, 꽃이 지기 전에, 신전에 가기 전에, 저는 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이는 이렇다고 하겠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제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는 안되죠.

인생을 즐겁고 우아하게 꾸릴 정도의 부를, 그러나 야심에 도전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해요.

저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러나 나의 영혼마저 지배할 수 없는 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이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했으면 해요.

은화한 품성, 사려깊은 말씨, 친절한 인도, 세심한 걱정까지도 아끼지 않는, 한마디로 저의 남편은 미가가 말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몰라요.

노량진동 五四번지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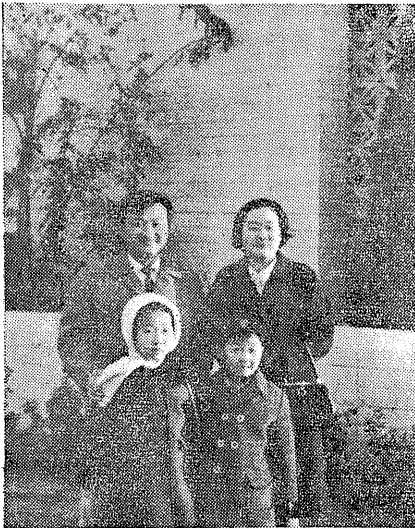
김
창
선
·
김
형
욱

이대로 죽어갈뻔 했던 제 나머지 人生을, 회의와 번뇌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한줄기 빛을 저에게 인도해준 Nelson 長老를 위시한 스티프스, 스노우, 黃忠烈諸長老들에게 우선 感謝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過去 數年間 長老教會, 監理教會 등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그렇다면 찾아 보자」라는 마음에서 다녀 보았습니다. 既成教會에서는 「天國과 地獄」 또는 「末世의 불의 審判을 과장 強調」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人爲的인 集會였고, 저에게 突出口로서의 찾아만한 眞理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醫學가운데에서도 精神醫學을 專攻하였으므로 精神分析學의 諸學說은 聖經과 저를 멀게하였었습니다. 그러던中 1963年 歐羅巴에 갈 機會가 있었는데, 이 기회에 꼭 基督教에서의 精神分析學을 찾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Tübingen 大學의 心理學主任이며, 基督教信者인 Gerhard Pfabler 教授에게서 마침 深層心理學(Depth Psychology) 講座를 듣게 되어 基督教의 指針으로의 精神分析研究에 對해 토론을 하였으나 別로 크게 感銘된 바 없었습니다.

1967年 7月 11日 노량진에 있는 저의 病院에 다리가 아픈 한 美國男子가 찾아왔습니다. 治療해주면서 이야기하던中 물몬敎의 長老이며 宣敎師라는 것을 알게 되어, 처음에는 흔히 있는 새로운 宗派라고 生覺하여 黠



<김창선 형제와 그의 가족>

은 親舊가 아까운 青年時節을 헛되게 宗教의 狂信으로 보내게 되는구나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겼으나 數次의 治療次 訪問으로 저의 마음의 動搖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聖經에도 없는(그때까지의 저의 無知) 처음 듣는 요셉 스미스, 몰몬經, 美國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神權을 회복했다는 등 거짓말이라고 生覺되었고 「美國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美國에서 하나님의 啓示가 나타났을까」하는 우매하고 배타적인 못난 '生覺'이 들었으나, 每週 한번 家庭에서의 工夫와 主日學校에서의 工課를 통해 漸次的으로 그런 생각을 없애고 요셉 스미스의 啓示받은은 精神病狀態에서의 幻想이나 幻覺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使者 「베드로」「야곱」「요한」이 聖經 그대로 美國에 나타나셨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神權이 그들로부터 恢復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唯一한 權能인 充滿한 敎會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7年 12月 2日, 벨슨長老의 끈덕진 訪問과 그에 對한 報答이 漸次 저를 몰몬으로 武裝시켜 주었고, 마침내 浸禮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祝福받은 家庭의 家長으로서 거듭 났다는 즐거움은 몰몬인이 아니고 맞볼 수 없는 心情이라고 生覺됩니다. 이 기쁨을 가진 몰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實存하시다」라는 證據를 모를

겁니다. 「이제는 살았구나」末世의 불의 審判은 觀念으로서의 恐怖가 아니라, 이 擇한 길로 그대로 나가고 努力하면 祝福받을 수 있다는 自信이 생겼습니다.

이제 總體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神格을 그대로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로의 歸一即 우리 個人이 「해의 영광으로 갈려면 神格으로의 同一視가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려면 꾸준한 努力과 기도하는 生活만이 몰몬 思想을 우리 마음과 몸속에 攝取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重生하였다고 自負하는 信念속에서 過去와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感情과 思考方式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即 感謝드리는 生活입니다.

독일 체제時 하루는 病院에 出勤하니 看護員이 편지를 傳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서울집에 있는 저의 妻에게서 온 便紙였었는데, 內容인 즉 저의 竹馬之友의 婦人이 胃癌으로 죽었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저의 얼굴은 우울하고 흐려졌고 안타깝고 同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던 독일 간호원이 「무슨 사연이기에 슬퍼하는가」고 물기에 그대로 이야기 하였더니 웃으며 기쁜 表情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서 얼마나 幸福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心情은 그 간호원은 利己主義이고 個人主義者라고 生覺하였으나 몰몬인이된 지금 느끼는

마음은 그때의 그 光景을 理解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理解는 感謝하는 마음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會」는 참 하나님의 權能을 가진 恢復된 唯一한 敎會이며 요셉 스미스는 豫言者이며 이 敎會의 敎理와 聖經과 물론經은 다 같이 하나님의 記錄이며 攝理라는 것을 分明히 믿습니다.



금년은 저희 가족에 있어서 가장 큰 變화를 가져온 해 입니다. 과거 약 3년 동안 애기 아빠와 함께 다른 교회에 다녔었으나 생활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구태의연 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던 중 제가 다니던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서 마침내는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올 7월 11일 미국 청년 두 사람이 저의 병원으로 치료하러 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하며 물론 교회의 장로라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란 말을 처음 듣는 말이므로, 물론이란 말을 마호멧교란 말로 듣고 「이상하다. 어떻게 미국인이 마호멧교인인가?」하고 다음 날 부더는 넬슨 장로가 치료하러

오면 경계하시라고 애기 아빠께도 말했었습니다. 몇일 후 주일 날 넬슨 장로와 애들과 아빠는 함께 교회에 가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다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애기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가 바쁘게 저는 「교회가 어떤가?」하고 여쭙워 보았습니다. 「기성 교회와는 전혀 다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두가 같이 토론하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좋으니 다음 주일부터 함께 나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저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라 별로 사람들도 많지 않으나 모두들 교사님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 오는 길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매 주 수요일 우리 집을 방문한 넬슨 장로와 스텝스 장로로 부터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던 중에 참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이 회복된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부터 성경과 물론경으로 마음이 무장됨을 알았고, 주일날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새로운 썩이 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과거에 다니던 교회의 장로, 집사들이 여러번 저의 집을 찾아와서 물론교는 이단 교회라고 역설했었으나

겨자씨같은 저의 신앙은 물론 교회 신도로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물몬이 어떤 교란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자기를 발견케 되었습니다.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권능인 신권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진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산 증거냐는 생각을 갖고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이바지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는 신념은 나로 하여금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1967년 12월 2일 동부 지부에서 벨슨장로로부터 애기 아빠와 사랑하는 딸 미영이와 저 3식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들 태완이는 아직 8살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받게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일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계실 애기 아빠가 빨리 신권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일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가정의 빛이 이웃에 비치게 되기를 노력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할 때면 두 애들은 자기 차례인 것을 두려워 않게 되었습니다. 취침시는 태완이가 누나인 미영이 침대에서 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애기 아빠께서 자기 주관대로 가정을 통솔했으나 침례후 부터는 저의 의견을 많이 받아 주며 저도 참된 내조로서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소홀해졌던 사랑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된 하나님의 권능에 제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벨슨장로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배 일문상 시 모집

1967년 6월호에 발표되고 11월호에 당선작이 없어 채모집한 바 있는 2회째의 배 일문상 시 모집은 2월 29일로 마감 됩니다. 많은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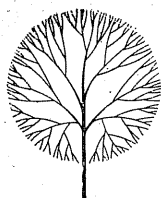
내용은 :

- 1)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 2) 한국의 열이 담긴 것으로
- 3) 신앙 시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벗 앞으로 직접 보내 주십시오.

부상으로는

- 1등 가족표지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과 1000원.
- 2등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과 500원.
- 3등 성도의 벗 1년분과 500원으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양심(良心)

“위선속에 발전보다는 양심속에 퇴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찌기 세계적인 철학자 쏘크라테스는 자기가 주장한 철학이 당시의 국가 이상에 어긋난다고 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독약을 내렸을 때,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그 독약을 마시지 마시고 이 자리를 떠나 딴 곳으로 가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시려 하십니까」고 얘기했을 때 쏘크라테스는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나의 철학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후세 사람들이 알것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양심은 결국 구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 독약을 마시고 인생의 종말을 고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우리들은 얼마만큼의 양심 속에서 살아 왔으며, 살아 불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자기의 양심을 숙여 사육을 채우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남보다 좋은 자리에 오르며, 자기보다 개인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생활에서 평안을 일깨워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위선속의 사회발전 보다는 차라리 퇴보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도록 노

력함이 우리로서 택해야 할 길이며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뭉침을 가질 때 거기엔 크나큰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읍니다.

미국에 와서 삼년이란 세월을 학교 테두리 속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The Church College of Hawaii 에 있을 때는 대개의 경우 교수가 시험시간을 감독했었는데, 여기 부리 감영 대학에 오니 모든 시험에 감독이 없는 것에 무척 놀랐읍니다. 교수는 단지 시험지만을 분배하고 나가게 되며,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게 될 때 학생들이 시험지를 모아놓게 되고, 그런 후에는 교수나 비서가 걸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읍니다. 학생들은 바로 옆의 학생 것도 결코 양심을 숙여가며 보려고는 안했읍니다. 신기하기까지한 저는 한 학생을 붙들고 물어 보았읍니다. 「문제가 안풀릴 때 남의 것을 보고 싶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교수가 우리의 양

심에 호소해서 믿고 나갔는데 우리가 교수의 신뢰를 배반하고 양심을 속여 가며 남의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낙제를 하면 했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탄과 찬사를 받았던 저는 자신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양심껏 살려고 노력했었나? 한없이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더군요. 솔직한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안풀리는 문제는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고개만 들면 보이는 옆 학생의 시험지를 보고 싶었습니다만, 주위의 억눌림과 양심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그들 속에서 나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저의 생각은 못푸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을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으며, 그런 후에 오는 기쁨은 대단히 큰 것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어찌도 문제가 많은지 주어진 시간안에 푸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교수는 집에서 써 오는 시험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코 책을 보지는 말도록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혼란 생각으로는 집에서 하는 시험이라 하면 책을 보든가, 친구끼리 의논을 하던가하는 것으로 알테이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 보여주지도 않으며, 불러는 생각없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서 제출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로 하던중 수학시험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딴 문제는 다 했으나 첫번 것을 도저히 못 풀었으니 그냥 제출해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보아서 교수의 의리를 저버리거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로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양심!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들의 양심을 지키도록 노력 합시다.

어제의 괴로운 조건과 오늘의 안타까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유혹과 질투의 틈바구니에서 허약해진 우리들의 양심을 보았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더욱 의지하고, 유혹과 싸우면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도록 노력 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1967년 11월 25일

안 상 인 드림

Sang In, Ahn

641E, 700N.

Provo, Utah 84601

U. S. A.



사진 : 1854년도 유타의 어머니로 뽑힌 엠마 레이 릭스 맥케이 자매가 주지사 제이 부랙큰 리씨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의 추억

제 4부 (12월호의 계속)

교회사업 — 여행

유럽에서의 선교

여덟달 후에 엠마 레이 맥케이는 만만치 않은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1922년 9월 14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대관장단에 의해 올슨 에푸 휘트니의 뒤를 이어 유럽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네는 다섯 아이들과 함께 그를 따라야 했는데, 가장 어린 것은 단 두살밖에 안되었고, 큰 아이는 이미 스위스에 선교사로 있었다. 그 부름은 맥케이家를 놀라게 했으나, 그들은 쾌히 그것을 받아 들였고, 곧 그들의 일 할 장소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두달 후인, 11월 17일에 캐나다, 몬트리알에서 배로 떠났다. 家内の 모든 책임을 홀로 처리하며 지내면서도, 교회 조직에서 보이는 레이의 끊임없는 활동과 그네의 헌신적인 태도는 이 새로운 부름에서 그네가 맡아야 할 무거운 짐들을 잘 준비하게 했다. 레이 는 유럽에서 여성들의 모든 보조 조직의 장으로 성임 되었다. 그네는 대

부분의 시간을 방문, 교육, 공과 진도표 작성이나 상호부조회, 초등협회, 청여성향회 역원들간의 지도력을 보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네는 그의 사랑과 친절의 영향을 받은 500명의 선교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그네는 힘써 일했고, 거의 끊임없이 여행했다. 이년동안 그네는 남편과 함께 영국 領 아이레에서의 총회에 참석하거나 매해 화란, 독일,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위스나 벨지움등의 선교부를 다니며 2000여마일이나 여행했다. 1924년 1월 초순에, 이들 분주한 부부는 불란서, 마르세이유에서 아르메니아 선교부를 방문하기 위해 시리아행 증기선을 탔으며, 거기서 그들은 환회에 찬 성도들과 함께 삼일동안의 집회를 가졌다. 그네는 가정과 영적인 것에 관한 그네의 현명한 권고와 유효한 충고나 모범적인 지도력으로, 이들 여러 나라 여성들의 찬양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자, 1924년 8월에 대관장단으로부터 제임스 이 탈메지장로가 유럽 선교부를 관장하도록 임명되었다는 것과 리버풀에 그가 도착하면, 맥케이 선교부장은 해임될 것이라는 통고가 왔다. 다시 레이 맥케이에게는 일단 자리가 잡혔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을 꾸려야 하는, 산더미같은 일들이 밀려 닦쳤다. 1924년 12월 6일 토요일에 고국을 향해 갈 몽캄 증기선에 승선할 준비를 해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최종적인 지시와 애뜻한 이별을 하기 위해 선교지역을 방문하는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솔트 레이크시로 귀환

유타주로 돌아오자, 그들은 솔트 레이크시에서 주택을 구하기 시작했다. 50 西北新大路에 있는 기분 좋은 아파트가, 1939년 봄에 그들이 1037 東南新大路에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안식처가 되었다. 다방면으로 다양한 엠마 레이의 활동으로 그네는 계속 분주했다. 여러해 동안 그네가 수술을 받아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솔트 레이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회장단에서 활동했다. 그네는 二次大戦중에는 적십자에서 일했고, 라하이에트 국민학교의 사친회회장으로 일년동안 봉사했다. 그네는 교회, 사업, 또는 시민의 지도자들과 함께 풍부한 사회 생활을 즐겼고, 극장, 심포니 혹은 특별 음악회등에도 다녔다.

그러나, 그네는 언제나 가정과 자녀를 첫째로 생각했다. 그네는 가정에서 높은 수준의 영적이고 교양적인 분위기를 항상 유지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런 일이었다. 완전히 헌신적인 태도로 그네는 그네의 주위를 이와같이 이끌었다.

“편히 앉으려므나.” 또는 “좀 도와줄께”, 혹은 “내 몫을 가지려므나” 이런 말들은 그네가 흔히 쓰는 어투였다. 그네의 매일의 일과에서, 그네는 희생정신을 나타냈다. 매일 아침 그네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네의 바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많은 조반을 마련해 주었다. 낮에는, 그네 남편의 약속에 따라서, 열두시부터 두시까지의 어느 때든 간에 아무 불평도 없이, 늘 따뜻한 점심식사를 차려 냈다. 매일 저녁 만일 그가 늦게 되면, 그네는 그네의 가족을 먼저 먹이고는, 그와 함께 저녁식사를 들기 위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빠가 혼자 잠수시길 즐겨하시지 않는 걸 난 안다.”라고 그네는 말하곤 했다.

그네는 참을성 있고, 애정있고, 이해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태와 생김새도 아름답다. 어떤 부인은 그네는 그녀가 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고 말했다. 家事를 돌보는 그의 자태는 언제나 깨끗했고, 부드러운 말씨를 쓰며, 명랑하고 유머 기질이 넘쳐 흘렀다. “생활하는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그네는 말한다. 그네는 늘 언행이 일치했다.

1942년 4월호 상호부조회지에서, “참된 기도는 인간의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성공적으로 부양하고 모든 면에서 참된 말일 성도가 되자면, 부모가 성실해야 합니다. 그들은 뜻한 바를 행하여야 하며, 그들이 약속한 것을 수행하고, 그들이 나타내야 할 것을 참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라고 썼다.

최근에, 엠마 레이 맥케이 자녀중 한분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네에게 이런 찬사를 드렸다.

「다정하신 우리 어머니는 매우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적 자질, 그 은유하고 강한 정신력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인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회생 정신과 가정에서의 협조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하신 품성과 격려로 지적인 思考를 높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우리들에게 관용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아름답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교리로서의 침없이 믿는 가정으로의 분위기를 창조하였습니다.

부군의 여행 동반자

후에, 그네의 자녀가 모두 성장했

을 때, 그네는 남편의 끊임없는 여행 동반자가 되었고, 그때마다 그네의 기쁨으로 모든 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네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평화의 말씀을 했다.

그 다음의 25년간의 바쁜 여행 동안, 엠마 레이 맥케이는 사도로 일하는 남편곁에서, 그의 힘을 충분히 돋우어 주었고, 대관장단의 한 임원으로 서 교회 모든 일을 수행하게 했다. 그와 함께 그네는 미국 전역에의 여러 스테이크에서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멕시코, 하와이, 혹은 南部, 東部, 中部, 北部 등 여러 주와 北部, 中央선교부를 여행했다. 그네는 예배당과 신전 헌납식, 준공식 혹은 다른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다.

1951년 1월 2일, 솔트레이크 동남 신전로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맥케이대관장과 자매님은 금혼식을 거행했다. 그날은 이 행복한 부부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양가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겨 했다. 어머니가 언제나 여유있게 그들과 놀아주고, 소설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해 주고, 그들의 일상일에 관해 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많은 찬사가 이 사랑하는 부부에게 주어졌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어떤 것이든 무시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고, 활동적인 봉사생활을 하신 것의 일부라도 느낄 수 있게 한 것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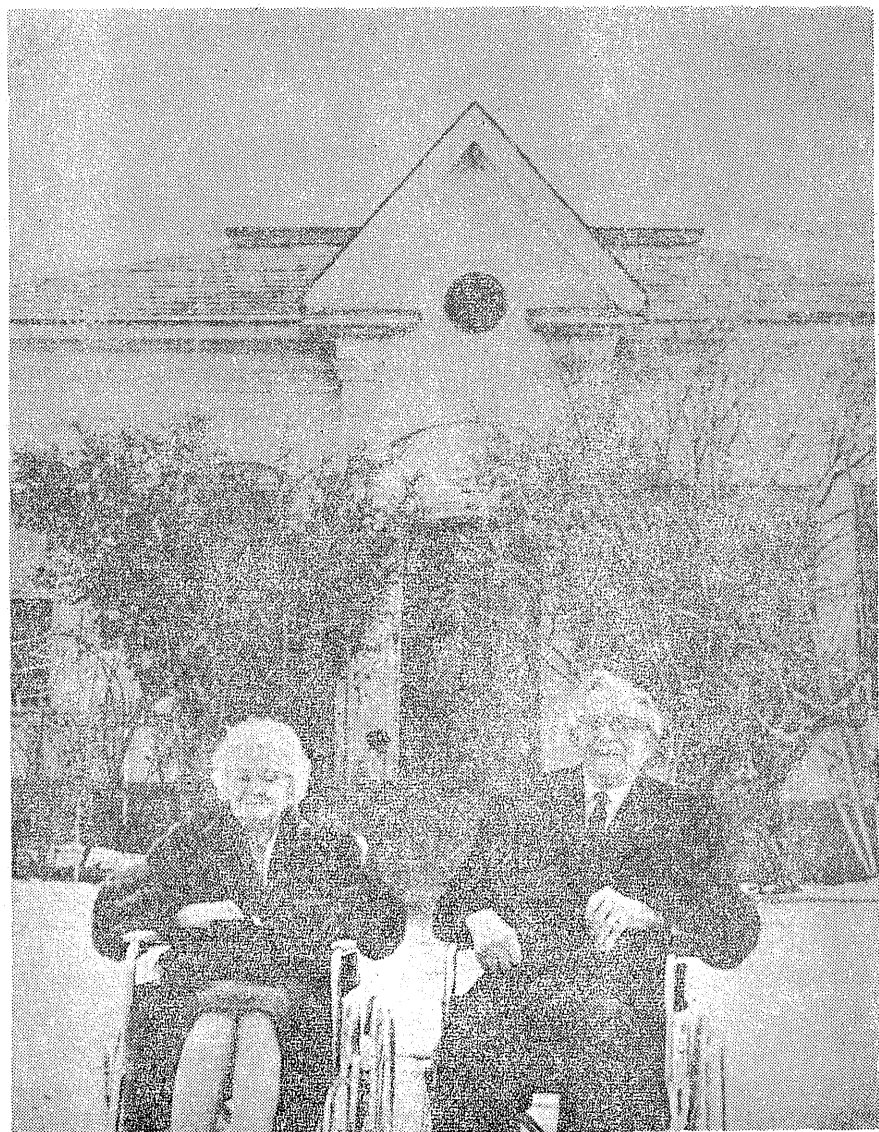


사진 : 1967년 1월 2일 대판장님과 맥케이 자매의 결혼 66주년 기념일에 엠마 레이 리스가 신부로 있던 집에서 기념 촬영.

드렸다.

1951년 4월 9일 월요일,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신권소유자들과 교회임원들이 참석한 聖會에서 엠마 레이 맥케이는 그네의 손을 들어 데이비드 오 맥케이를 교회 제구대 대관장으로 지지했다. 감사의 눈물에 젖은 그네는 남편이 이 큰 임무를 감당해 갈만큼, 정력적이고, 민활하고,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네의 능력 있는 남편에 대한 자랑과 존경심과 아울러, 그네는 그가 큰 교회의 長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경험과 훈련을 여러 해를 두고 익혀 왔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제부터의 그들의 여행은 북미대륙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는 데까지 확장될 것이다.

다음 해인 1952년에, 그네는 유럽 선교부로의 여행에서 남편을 따라 갔고, 핀란드에서 그네의 75회 생일을 마지했다.

그날은 그림같은 숲속에 비가 퍼붓고 있었으나, 엠마 레이 맥케이는 날씨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우산을 받고 서서, 21명의 선교사들이 한 사람씩 그네에게 와서 빨간 장미 한송이씩을 드릴 때 마다 웃음지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것은 잊지 못할 생일 파티였다.

이 다사한 여행에 좋은 일들도 많았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부부의 여행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맥케이 대관장님과 자매님은 사사로이 교회 회

원들을 영접했다. 그들은 오랜 우정을 새로이 하고,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를 즐겨 했다.

8週동안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 고국에 돌아오자, 그들은 그들을 환영하러 비행장에 모인 2000여 친구들과 이웃들의 열광적인 군중 속에 둘러 싸였다. 레이 맥케이는 그들이 방문했던 몇개의 선교부를 대표하는 구룹들이 선사한 열개의 줄기가 긴 장미다발을 받았다. 교회에서 유럽에 두개의 신전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하자 열광적으로 기뻐했다. 엠마 레이 맥케이가 1952년 10월 2일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행한 그네의 보고연설 중에 인용한 詩는, 여행자와 그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 느꼈던 인간적인 접촉의 영향력과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손길

그대와 나의 손길이려니.

그것은 아파하는 가슴이 필요로 하는
안식처나 빵이나 포도주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

안식처는 밤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빵은 하루를 넘기기 어려우나
그대의 손길과 그대의 음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혼을 울릴

노래가 되리.」

맥케이 부부는 집회, 악수, 개인적 인터뷰 혹은 1953년 8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여행에 따른 말씀등을 통해 전세계의 회원들과 인간적인 접촉을 계속하였다. 또한 12월에서 1954년 2월 까지 남아프리카, 우루과이, 브라질과 中美선교부등의 32,000 마일을 공중 또는 철도로 여행했다. 교회 대관장을 맡은 초기에는 中·南美를 방문했다. 1955년 멕케이대관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82회 생신을 지냈는데, 거기서 그는 스위스 신전을 헌납했다. 그네의 남편과 함께 그네는 태버나클 합창단과 같이 유럽제국을 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하여, 합창단의 명성을 높였다. 그해 일찌기, 멕케이 부부는 교회의 남태평양 선교부를 다니며 45,000여마일을 여행했다. 이 역사적인 여행은 선교 사업에 큰 은혜를 주어 그들이 방문한 국가의 교회에 폭넓은 관심을 끌게 했다.

1953년에, 엠마 레이 멕케이는 말일 성도의 부인과 어머니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과, 교회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쳐 주어 많은 영향을 미친 표적으로, 상향회 6월 총회에서 명예 황금의 수확상을 수여 받았다.

유타의 어머니로 선정

1954년 4월에, 그네는 “올해의 유타의 어머니”로 뽑히는 명예를 받았다. 그네는 일요일 오후 가든 파크와 드 예배당에 짝 들어찬 중증들 앞에서 브랙큰 리 지사가 수여한 인상적인 트로피를 받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한 어머니들과 유타주의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랑 많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유타의 어머니가 된 명예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을 중심으로 감사히 받고 또한 저는 여기 뉴욕이거나, 다른 어느 곳의 모든 어머니들을 명예롭게 대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명예의 증정에 즈음하여, 그네의 며느리는 그를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같이 여행하는 동안, 모든 연령과 종족과 종파의 많은 사람들은, 좀더 나은 생활, 높은 도덕 수준과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한 국가간의 좀더 큰 이해를 권장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수녀들과 자연 스럽게 지내고 환담했으며, 그러면서도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랑에서만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바탕을 갖고 계셨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머니가 기독교인의 원리를 가르치고, 완전한 가족관계를 세우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쓴 기사를 통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를 접하거나 글을 통해서 사랑, 결혼, 가족문제, 이혼등에 관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각 사람은 그네의 경건한 돌봄과 개인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멕케이 부인의 생활은 그의 생각이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믿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은 좋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어진 명예에 관한 논평을 물었을 때, 그네의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과 여섯 자녀와 증손들에게는 매해, 매일 「올해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했다.

엘린 기본에 의해, 1954년 5월 22일 테저렛 뉴스의 교회란에 실린 기사의 인용문은 1954년에 레이 맥케이가 받은 또하나의 영예를 말해 주고 있다.

「1954년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부인에게 이종의 영예가 되는 해이다. 교회에서나 혹은 미국에서도 “올해의 어머니”로 뽑히거나 명예 인문학 박사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부인은 거의 드문 것이다.

그러나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가 5월 29일 유타 주립 농업 대학 졸업식전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두달 동안에 이 두가지를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맥케이부인은 기독교인의 원리, 특히 훌륭한 가정 생활이나, 좀더 나은 생활과 국가간의 협조에 관한 그네의 수없는 이야기와 글로 모든 연령의 수천만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의 영향은 그 자신의 가족의 한계를 넘어 널리 퍼졌다. 꾸밈없는 사랑, 쾌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도 분명한 이해심으로 그네는 전 세계에 걸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달은 여행

뉴질랜드 신전, 남태평양에서의 교회대학과 두개의 교회의 역사적인 헌납식에서, 레이 맥케이는 이들 모임

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그 곳을 떠날 때, 그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1960년 2월에는 병이 나서, 그네의 행동에는 제한을 받았으나, 그의 마음은 전혀 해이하지 않았고, 영예가 계속적으로 그네에게 내려졌다. 1961년에, 그네는 남편과 함께 하이드 파크 교회의 헌납식을 위해 다시 런던에 갔다.

1964년 5월에, 연례 여성 주간 축전에서, 그네는 “올해의 리스 대학 여성”으로 뽑혔고, 리스 대학 수훈공로상을 받았다. 그 표창장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그는 청결한 생활, 고결한 정신, 헌신적인 봉사, 시들지 않는 유머와 결손 사랑으로 만인의 가슴에 이상적인 말일 정도 부인과 어머니의 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던지 ‘유덕하것 사랑할만하것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구하여 마지 않았고, 모든곳의 부인들에게 영적인 지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기로 훌륭한 남편을 섬기고, 인내와 이해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친절과 품위와 믿음으로 가정 생활을 꾸민, 여성의 가장 숭고한 과업을 탁월하게 이룩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은혜 많으신 부인에게 이 영예를 드립니다.」

1964년 11월에, 그네는 여든 일곱의 연세로, 오클랜드 신전 헌납식에서 여섯 모임중 다섯모임에나 참석했다.

1966년 4월 21일, 부리감 영 대학 여학생회에서 그녀에게 “올해의 여성”이란 명예를 수여했는데, 이로써 그녀는, 여학생회에서 캠퍼스내의 여학생들의 사기를 돋우고 격려하기 위해 해마다 주기로 한 이 賞의 첫 수납자가 되었다. 그회의 여학생들은 그녀가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해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녀는 그 집회에 참석했고, 무척 즐거웠으며, 허니빌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그녀에게 선사한 아름다운 누비 이불과 훌륭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그녀에 대하여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며, 순결한 생각과 높은 이상을 지닌 여인」이라 말했다.

구십세의 고령으로, 레이 맥케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직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있다. 유력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던 한 아들이, “어머니, 이번 여행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하

자, “응, 그래.”하는 대답이 곧 나왔다.

“좋아, 우리 상세한 것은 후에 얘기하기로 하자.”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 아이는 내가 아무래도 가지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다우.”라며 농담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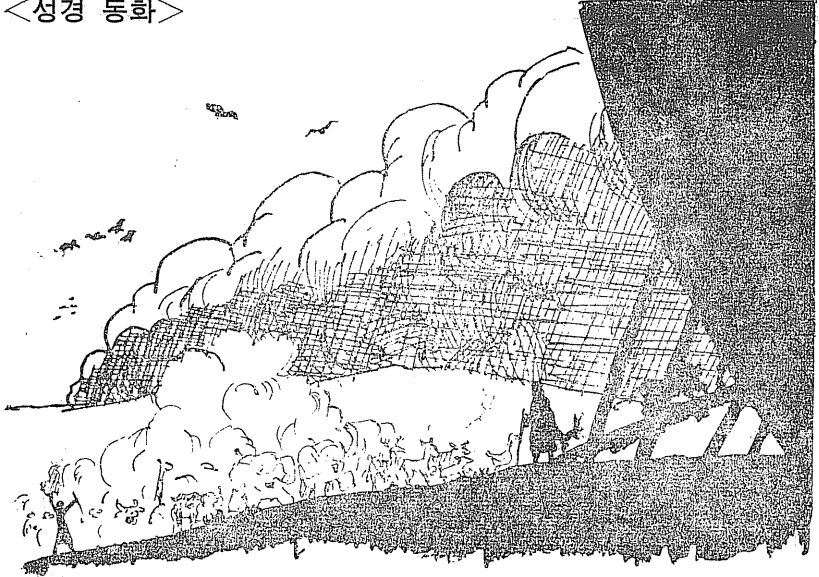
맥케이 대판장은, 1877년 6월 23일은, 엠마 레이 릭스가 탄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없는 행운의 날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긴 결혼생활을 늘 잔잔하게 지켜준데 대하여 그와 사랑하는 부인에게 공을 돌리고 있다. “아내는 우리가 함께 보낸 수십년 동안 한번도 거친 소리를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66년의 결혼 생활을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맥케이 대판장은 이런 말씀을 주신다. “나의 아내와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도록 하십시오”라고.

— 끝 —

기 도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던 안하던 가슴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기도는 한숨의 짐과 눈물 흘림이며 하나님께만 가까이하려 우리러보는 눈.
 기도는 어린이도 하는 단순한 말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엄숙한 말일세.
 기도는 성도의 호흡 지당한 태도며 죽음 문의 암호이니 하는 자 천국가리.



이야기로 엮은 구약성서

김 양 자

3. 노아 할아버지와 커다란 배

아담과 이브가 즐거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 이마에는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는 아기들을 갖게 되었고, 이 아기들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동네를 만들어서 살게 되었어요. 또 동네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같이 여러나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섬세한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세상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훌륭하신 마음을 전부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보기 흉하게 더럽히는 악한 일들만 하고 있었어요.

이 모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괜히 살도록 만들었구나” 하시며 슬픈 맘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없애고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리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할 일이 한가지 있으니,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사는 더러워진 세상이라도 노아 할아버지라고 하는 정직하고 착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착하여 남을 잘 도와주고해서 하나님께서도 귀여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만은 보호하셨다가 다시 만드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삼고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 왔다. 나는 이제 비를 많이 내려 악해진 세상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너의 가족들만은 보호할 터이니 너는 급히 잣나무를 찍어다가 큰 배를 만들어라. 높이는 삼층으로 하고 일층, 이층, 삼층으로 칸을 막아 그 방에 물이 새지 않도록 기름을 발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 할때에

온 가족이 같이 배에 타고 또 코끼리 기린, 소, 말 같은 동물들의 암컷과 수컷의 한쌍씩을 각각 배에 태워라.”

이말을 들은 노아는 배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했어요. 나무를 찍고 톱질을 하고 아주 큰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노아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던 사람들이 많았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높은 산 꼭대기에다 크나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친사람이라고 놀리워 주는 소리가 더욱 노아의 귀를 아프게 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쉬지않고 배 만드는 일을 하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을 때 주먹같은 빗방울이 여기저기 떨어졌어요. 그러자 소낙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꼬칠줄 모르고 밤낮 사십일간을 내렸어요. 집들과 나무들이 물속에 잠기고 사람들은 물속으로 떠내려가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큰 배에 탄 노아 할아버지와 동물들만은 괜찮았어요.

사십일이 지났어요.

4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나리게 하는 하늘의 문을 살그머니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하얀 구름을 헤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방긋 웃는 햇님의 얼굴을 볼수 있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와서 이 세상은 전부 물바다가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물이 햇님 얼굴이 보였다고 없어질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한밤 두밤……하고 많이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백밤자고 또 오십밤을 자고난 후 이었어요. 높은 물이 많이 없어져서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저어서 높은 산 꼭대기 배에 있는 밧줄을 매고 배의 문은 여셨어요. 그

리고 비둘기 한마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노아 할아버지가 계신 배로 돌아왔어요. 아마 비둘기가 앉아서 쉴 땅과 나무가 안 보였나 봐요.

다시 일곱 밤을 자고 난 후 또 한번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아가게 하셨어요. 아침에 나간 비둘기가 저녁에 다시 돌아 오면서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비둘기를 본 노아 할아버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일곱밤을 지낸 후 다시 비둘기를 날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다시는 배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 집이 땅에있는 나무위에 세워졌나봐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배문을 활짝 여시고 세상밖으로 나오셔



서 여러 곳을 보시니까 땅은 진과 같았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참으로 기쁘셨어요. 몇 달전에 본 햇빛과 좋은 땅을 볼 수 있으시게 되셨으니까요.

이 때 노아 할아버지께 하나님은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두 배에서 내려도 좋다. 기린, 코끼리, 사슴 등 모든 동물을 숲속으로 보내주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식구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목소리로 이야기 하셨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서 내리셨어요. 동물들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고 숲속으로 다 돌아갔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식구들은 즐거워서 하나님께 선물도 드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이제부터는 나도 다시는 비를 많이 내리 이 세상이 전부 물속에 잠기는 슬픈 일은 하지 않으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예쁜 무지개를 구름속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언제나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니 아름다운 일곱색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걸렸는데 참으로 예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가 온 다음에 곱고 알록달록한 일곱가지 색의 무지개를 볼수 있게된 것이어요.

노아 할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어요.

편집 후기

○ 요셉 스미스 소장의 파피루스를 되 찾았다는 소식은 우리 만일 성도에게 있었서 커다란 반가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침해 주는 것이어서 표지로 내어 보았습니다.

○ 교회 총본부의 지도자 행크스 행제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은, 움추리기쉬운 한겨울의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축복이였습니다.

○ “나의 꿈의 여인에게”와 “주의 전당으로”는 독자의 추천으로 실었습니다. 좋은 글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이 많이 읽어주셨던 “백케이 자매님의 추억”이 금월호로 연재를 끝맺게 되었습니다. 호응에 감사하며 좋은 연재물을 계속 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격려의 서신에 용기를 북돋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벗으로서 성실하겠습니다. 더욱 더욱 더욱 복 받는 해이길 바랍니다.

일 반 용

물문경.....150원
 물문경(가죽표지).....1,200원
 물문이란.....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50원
 찬송가.....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100원
 기이한 업적(상권).....50원
 기이한 업적(하권).....50원
 말일성도란.....100원
 복음의 실천.....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150원
 성전중의 지도자.....100원
 주님의 멍세이지.....100원
 주님의 멍세이지(교사 보조 교재).....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50원
 천택의 밤(봉이반 공과).....50원
 장미반 공과.....150원
 지도 원리.....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20원
 인간과 하나님.....100원
 집사 고문 지도서.....150원
 회복된 성교회.....100원

유 년 주 일 학 교 용

우리의 종교생활(상).....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100원
 주안에서 자라남.....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150원
 어린이 찬송가.....100원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宣 教 本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⑬ 3 9 9 5
東 部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東 大 門 支 部	⑫ 1 0 0 5
三 清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⑭ 3 5 9 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흥정로 2가 58의 1
	⑬ 1 2 0 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⑫ 0 7 4 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교동 177의 13
	⑫ 4 2 7 9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태화계과 2층
	② 9 8 5 2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 2 7 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 삼덕동 2가 24번지
	② 6 6 5 9
釜 山 支 部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 0 7 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部	광주시 금동 165번지 이발소 2층
	② 2 6 9 2
全 州 地 域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2 8 1 9

성도의 벗

發 行 日 1968年 1月 1日

通 卷 第 30 號

發 行 人 襄 一 文

編 輯 人 洪 武 光

發 行 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教本部

印 刷 所 寶 普 齋 印 刷 所